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주최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기획 | 미디어교육팀 최용재, 황보희

제작 | Thinkgood

이 사례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CONTENTS

01 제5회<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소개

참여자 통계	06
주제별 통계	07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08
제5회 <뉴스일기 뉴스일기> 심사대전	17
공모전 참여 후기	23

02 수상자 인터뷰 & 대표작 모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대상	32
어린이 저학년	금상	38
	은상	39
	동상	39
어린이 중학년	금상	42
	은상	43
	동상	43
어린이 고학년	금상	46
	은상	47
	동상	47
청소년 중등	금상	50
	은상	51
	동상	51
청소년 고등	금상	56
	은상	57
	동상	57
성인	금상	62
	은상	63
	동상	63
지도자	우수지도자상	64

03 공모전 수상 명단

대국민 뉴스 리터러시 캠페인

뉴스읽기 뉴스일기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뉴스를 접하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뉴스에 공감을 하거나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를 넘어서 뉴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진위여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에게 뉴스의 분별력 있는 이용과 책임 있는 활용, 올바른 뉴스 이용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9년 '뉴스일기를 실천하는 뉴스일기장' 을 배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수상자들의 좋은 뉴스를 고르는 노하우, 이를 통해 뉴스일기를 쓴 경험, 뉴스일기장을 소개하기 위해 '우수사례집'을 제작했습니다. 제5회 공모전에서 수상한 일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보는지, 이를 보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살펴보세요!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통해 뉴스를 본 그날의 내 생각을 작성하고 주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생활 속에서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뉴스 리터러시를 실천하고 그 과정을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꼭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 혹은 그림 등 자유롭게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색종이, 스티커, 색연필로 여러분의 일기장을 재미있게 꾸며도 좋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어린이부터 학생, 직장인, 가족,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뉴스·미디어와 함께 하는 여러분의 일상을 일기로 기록해 주세요!

뉴스 리터러시란?

뉴스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뉴스·정보에 적절히 접근하여 분별력 있게 이용하는 능력, 뉴스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 콘텐츠 공유나 공감 표시하기)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뉴스를 이용하는 능력 (뉴스 저작권 준수, 댓글 예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공모전 소개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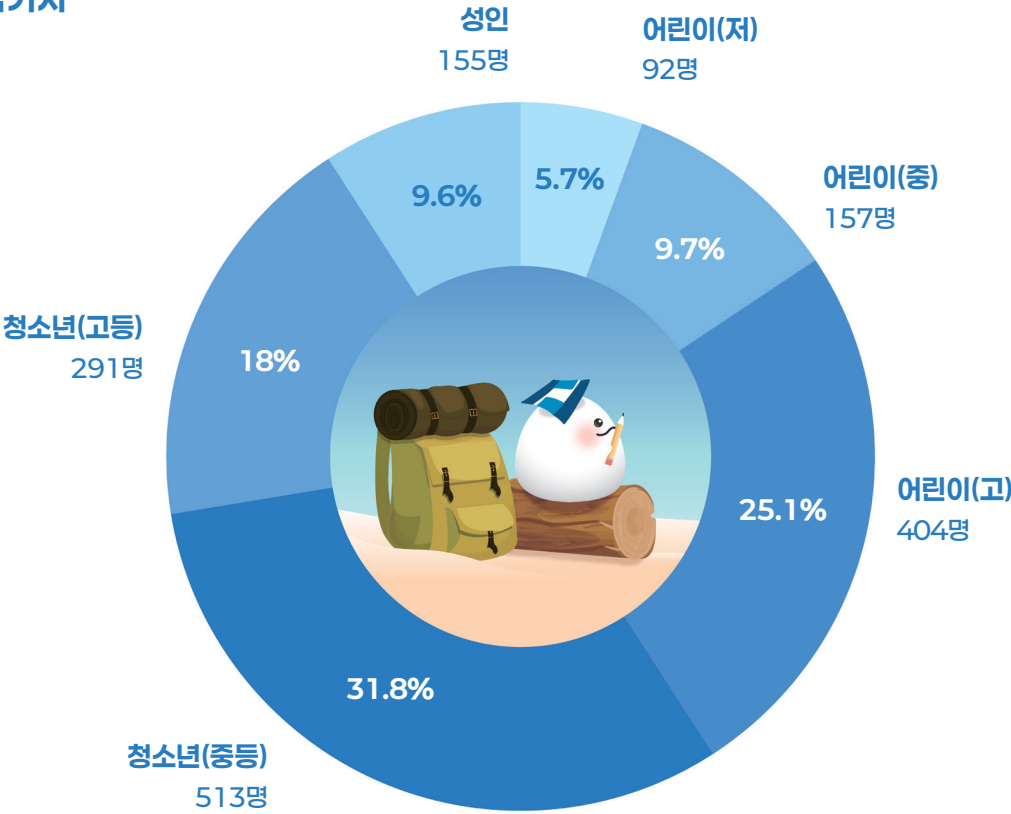
참여자 통계	06
주제별 통계	07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08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심사대전	17
공모전 참여 후기	23



제5회 뉴스읽기 참여자 통계

전 연령대에서 참여한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은 청소년(중등)의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어린이(고), 청소년(고등) 순이었습니다. 최다 일기장수는 405장이었습니다. 최연소 참여자는 6세, 최고령 참여자는 63세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뉴스일기, 언제 어디서든 뉴스읽기 뉴스일기로 건강한 뉴스읽기 습관을 우리 함께 해요~!

연령별 참가자



최다
일기장 수



405장

최연소/최고령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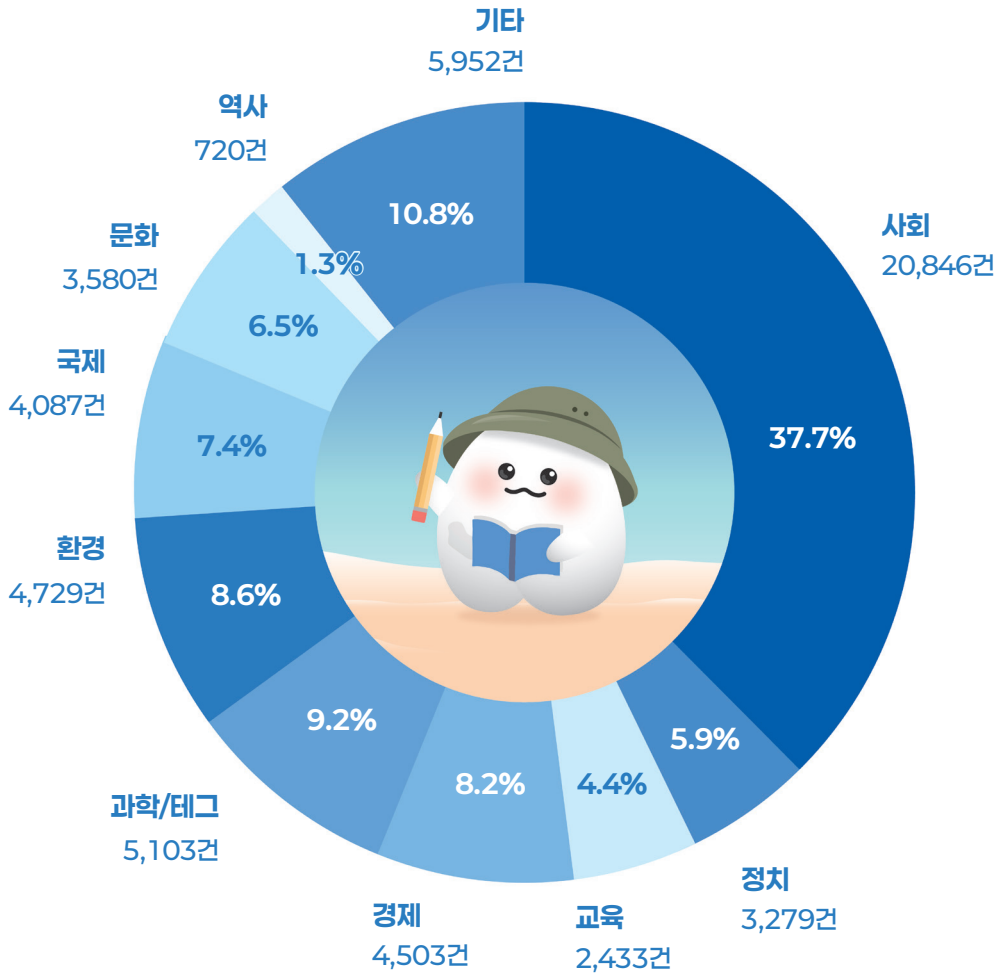


6세



63세

제5회 뉴스읽기 주제별 통계



연령별 관심 주제

사회 환경	사회 과학/ 테크	환경 과학/ 테크	사회 정치	경제 과학/ 테크	경제 국제
어린이(저)	어린이(중)	어린이(고)	청소년(중등)	청소년(고등)	성인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 1

디지털 디톡스

연결을 끊고 나를 되찾다



청소년(중등) - 황수아

나는 내가 핸드폰에 중독되어 안좋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디지털 디톡스-스마트폰 디톡스를 실천하려고 한다. 이제는 핸드폰과 인터넷에만 얽매어 살아가지 않고 내 삶에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성인 - 김지나

언젠가부터 너무나도 편리한 휴대폰으로 삶이 채롭고 생활하는 데에 있어 편리해졌지만 고립되어지고 상호관계가 없어지는 삭막한 삶이 되어가는 것 같다. 집안에서도 각자 핸드폰을 하느라 대화가 없다. 디지털이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디톡스가 필요할 때이다.

No. 3 열거출발과제 2022년 9월 29일

뉴스 제목: 스마트폰 디톡스

뉴스 발표자: 2022년 4월 21일 황수아

주제: ()

스마트폰 디톡스

디지털 중독에 걸린 사람과 미친지 못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뇌가 일하는 데 방해가 되고...
디지털 디톡스는 스마트폰을 잠시 사용하지 않는 것...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
디지털 디톡스의 방법...
디지털 디톡스의 효과...

QR Code

No. 열거출발과제 2022년 9월 29일

뉴스 제목: 디지털 디톡스

뉴스 발표자: 2022년 4월 21일 김지나

주제: ()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
디지털 디톡스의 방법...
디지털 디톡스의 효과...

QR Code



AI의 진화

변화무쌍한 AI의 모습



어린이(중) - 양하운

많은 노력과 수고, 많은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1등을 한 켄자 라일리의 제작자가 대단한 것 같다. 내가 AI 미인 대회 심사위원이라면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적게 하면서 정교하게 만든 AI에게 점수를 많이 줄 것 같다.



청소년(고등) - 조한나

평소에 시가 우리 생활에서 좋은 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일반 SNS에서와 뉴스기사 등에서의 문제점이 많았다. 평소에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나에게서는 피해가 안을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쉽게 접할 문제점으로 나와서 나만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될 것 같다.



의대 정원

생명까지 연결되는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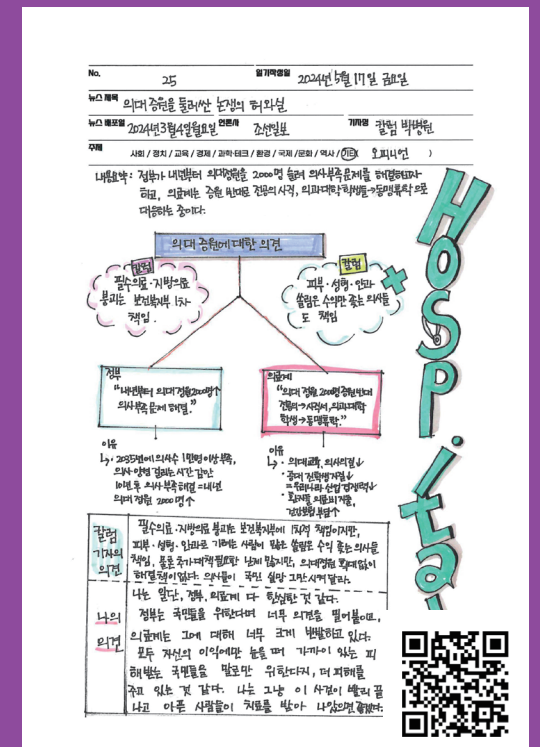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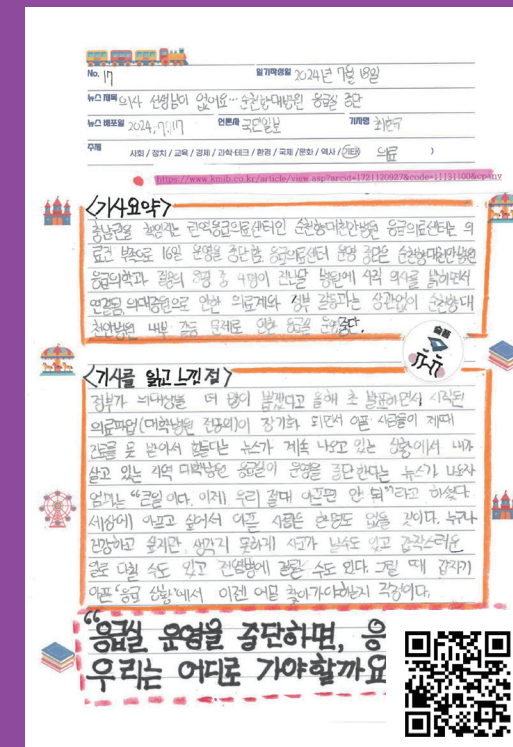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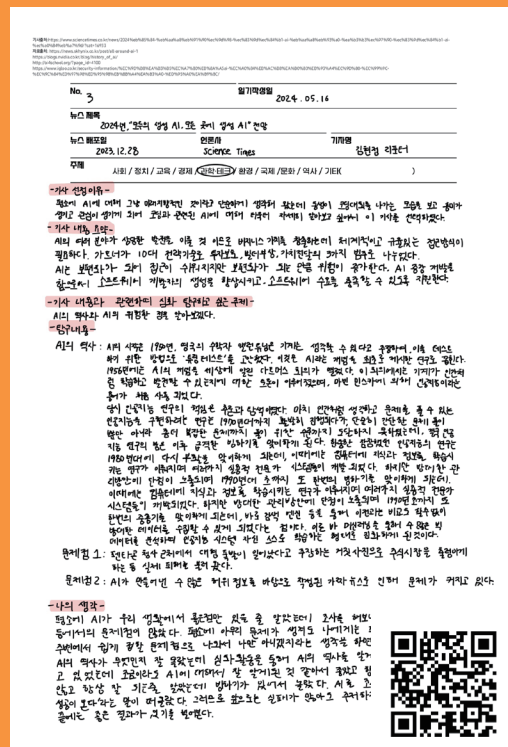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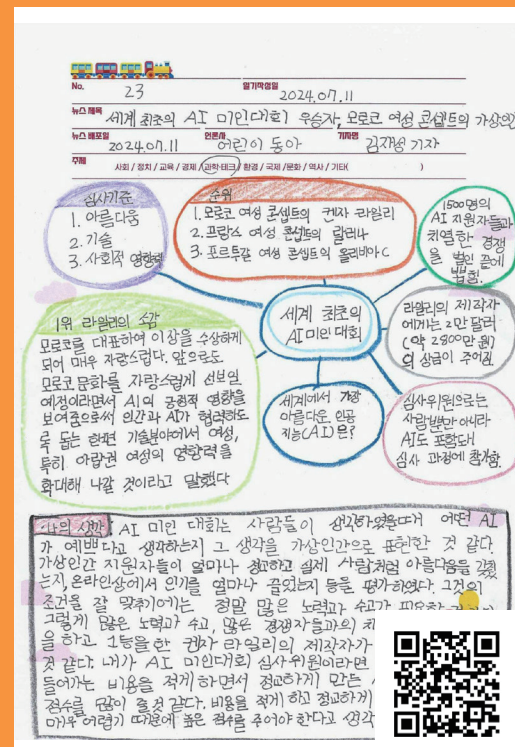
어린이(중) - 윤예준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 건강하고 싶지만 생각지 못하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일로 다칠 수도 있고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럴 때 갑자기 아픈 '응급 상황'에서 이젠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 걱정이다.



어린이(고) - 이지윤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다며 너무 의견을 밀어 붙이고, 의회
 계는 그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두 자신의 이익
 에만 눈을 떠 가까이 있는 피해 받는 국민들을 말로만 위한
 다든지, 더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이 사건이
 빨리 끝나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 나왔으면 좋겠다.





뉴스일기를 심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뉴스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뉴스를 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일기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많이 접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뉴스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비교해 보고, 뉴스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리하며, 뉴스 기사를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뉴스 리터러시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뉴스는 그 이름답게 매일 일어나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꾸준함'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적은 양의 일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한 뉴스일기 역시 나름의 기준으로 좋은 점수를 줬지만, 정해진 기간 길든 짧은 꾸준히 작성된 일기에 가장 큰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언론기자(자·중·고)]

뉴스 일기는 뉴스가 갖는 정체성과 개인이 갖는 정체성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뉴스에 잠식당하지 않고 나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일기를 심사할 때 독자와 뉴스와의 상호작용과 독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국어교육과 교수]

<뉴스읽기 뉴스일기>라는 공모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뉴스를 읽어 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뉴스를 분석할 때 누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재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톺아 본 뉴스일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뉴스가 제시한 정보를 얼마나 비판적으로 읽고 있는지와 동시에, 뉴스가 소개한 정보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 맥락에서 해당 이슈를 성찰하였는지를 살폈습니다. 뉴스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다양한 관점과 가치, 그리고 그러한 이슈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맥락들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을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학 연구원]

단순히 뉴스 내용을 정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뉴스를 접한 본인의 비판적 시각이 담겨있는지, 사회 현상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를 눈여겨봤습니다. 뉴스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고, 생각의 너비와 깊이를 키울 수 있는 수단 아니까요.

[언론기자(청소년·중·고등, 성인)]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뉴스 일기를 소개해주세요.

마치 한 편의 사설이나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처럼 뉴스를 읽고 난 후 자신의 생각을 즉 써 내려 간 일기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뉴스 기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과 반대의 입장에서 뉴스 기사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해 가는 것이 뉴스 읽기, 뉴스 일기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제가 중점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꾸준함'이 돋보인 일기들이 세편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장점이었지만, 꾸준함 속에서도 다양한 형식을 추구한 일기들이었습니다.

[언론기자(자·중·고)]

모든 뉴스 일기마다 다른 관점을 가진 두 기사를 소개하고 각 기사 내용을 요약한 후, 자신만의 관점을 세워서 글로 나타낸 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한 읽기 방법은 가장 고차원적인 방법이라 심사를 하는 내내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는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국어교육과 교수]

뉴스를 심도 있게 읽고 생각의 결과로서 성찰과 통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뒤 이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던 일반부 참가자의 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뉴스를 읽고 던진 질문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답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깊이와 넓이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뉴스읽기와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뉴스일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대상작을 받은 뉴스일기는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뉴스 읽기의 부분들을 충실하게 보여준 일기입니다. 하나의 뉴스를 읽고 1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본 뒤, 궁금했던 지점들을 더 '탐구'해나가고, 다른 뉴스와 다른 관점들을 추가적으로 찾아본 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나갔습니다. 그 탐구의 '과정'이 매우 의미있는 뉴스 읽기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팩트체크,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 읽기를 진지하면서도 흥미롭게 확장해나가는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대학 연구원]

특정 작품이 기억에 남는다고보다는 초등학생들의 작품이 예상 외로 매우 수준이 높아 놀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접한 세대여서 미디어리터러시, 뉴스리터러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영민하고 똑똑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기자(청소년·중·고등, 성인)]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뉴스일기 작성 꿀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뉴스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기보다 뉴스 내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일기나 해당 뉴스 기사와 유사한 관점의 뉴스 기사들을 모아 재구조화하는 일기, 다양한 관점의 뉴스 기사들을 비교해 보는 일기, 뉴스 내용을 우리 일상의 삶과 연계해 보는 일기 등 뉴스 기사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내용이 다소 어렵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접해 보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뉴스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기보다 뉴스 내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일기나 해당 뉴스 기사와 유사한 관점의 뉴스 기사들을 모아 재구조화하는 일기, 다양한 관점의 뉴스 기사들을 비교해 보는 일기, 뉴스 내용을 우리 일상의 삶과 연계해 보는 일기 등 뉴스 기사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내용이 다소 어렵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접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론기자(자·중·고)]

뉴스뿐만 아니라 어떠한 글을 읽더라도 읽기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읽고 있는 글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뉴스 읽기의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꿀팁은 나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뉴스를 고르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펼칠 수 있고, 뉴스의 기사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받은 성공한 것입니다.

[국어교육과 교수]

뉴스의 안팎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하고 답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질문인 누가 이 뉴스를 만들었는가? 이 뉴스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달리 이해하고 있는가? 이 뉴스에는 어떤 관점이 포함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는가? 이 뉴스를 만든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등을 공부하고 난 뒤 뉴스와 관련된 질문을 추출해 답해 본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뉴스가 제시한 정보를 분석하기, 뉴스 안에 다 제시되지 못한 이슈의 맥락을 구조화하기, 나의 생각을 정립하기

[대학 연구원]

뉴스리터러시의 핵심 중 하나는 팩트체크라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는 전문적인 영역이거나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한두 번 더 연관 정보를 검색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팩트체크 활동입니다. 그런 습관만 들여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출판작 중에서도 팩트체크를 가미한 작품이 꽤 많았는데요. 공모전 이후에도 그렇게 능동적인 뉴스 소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기자(청소년·중·고등, 성인)]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초등학생들의 꾸준함과 성실함, 창의성과 사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뉴스 기사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뉴스 기사까지 읽으며 일기를 작성해 가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뉴스 기사와 친하게 지내며 문해력과 사고력을 길러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 나가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현직 기자로서, 독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기사를 단순히 읽는 수준에서 나아가 나라면 기사를 이렇게 썼겠다,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 혼자서 뜨끔하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소중한 독자와 시청자가 있다는 생각에 본업에 정말 충실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언론기자(자·중·고)]

뉴스를 읽고 뉴스에 대한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뉴스 기사에 접근해야 하는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 등은 학습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힘은 꾸준함에서 오는 성장만큼 가르침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교육과 교수]

저는 “꾸준히 하면 힘이 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참가자들의 뉴스리터러시가 향상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 회차의 우수사례들을 보고 배움을 얻어 자신의 뉴스일기에 적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읽기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좋은 뉴스일기를 발굴해 소개한다면 10회쯤 되면 심사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도 꾸준히, 참가자들의 뉴스읽기도 매일 꾸준히 하면 뉴스리터러시 함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너무 많은 참가자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뉴스일기를 작성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시민 교육으로서 뉴스읽기, 뉴스일기가 더 대중적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학 연구원]

해를 거듭할수록 출판작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이 이번엔 체득한 노하우를 활용해 앞으로 일상에서도 뉴스를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론기자(청소년·중·고등, 성인)]

심사위원들이 말하는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이다!

디딤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자 사고력 계발의 디딤돌이다.
[초등학교 교사]

소통

뉴스를 단순히 전달받는 역할에서 나아가, 뉴스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기자(저·중·고)]

칼슘

정신적 뼈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양분입니다.
[국어교육과 교수]

트랜스포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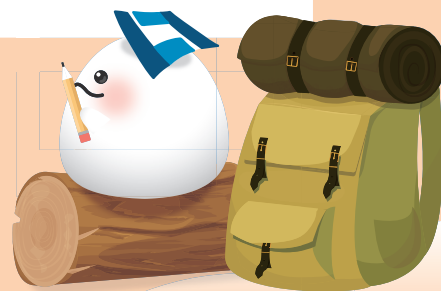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트랜스포머다. 기자가 본 세상을 내가 보는 세상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 교사]

빛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사회의 미래를 밝혀줄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연구원]

미디어 홈트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누구나 뉴스·미디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기자(청소년 중·고등, 성인)]



공모전 참여후기

피자 쏜다~!
접수 이벤트에 당첨된
공모전 참가자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대구동평중학교



Q1. 학교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1 저희 학교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장하며 친구들과의 분란이 적고 흔히 말해 일진과 같은 친구들이 없어 동등한 친구관계가 많은 편입니다.
- 2 대구동평중학교의 장점은 학생들을 위한 수많은 체험과 활동적인 교육들 학생을 위한 지원이 많은 학교이다.
- 3 동평중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동아리들이 많은 중학교라고 생각합니다.
- 4 우리 학교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유명하다.

Q2. 공모전 참가 동기는 무엇인가요?

- 1 도덕시간에 도덕선생님께서 이러한 대회가 있다고 알려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이 대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2 뉴스를 읽은 후의 나의 생각을 모두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 내 생각과 다른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3 독서를 하지 않았었는데 독서 습관을 기르고 싶어서 뉴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 4 처음에는 도덕선생님의 추천으로 시작하였지만 다양한 뉴스를 보고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 활동을 통해 사고력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참여후기

피자 쏜다~!
접수 이벤트에 당첨된
공모전 참가자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대구동평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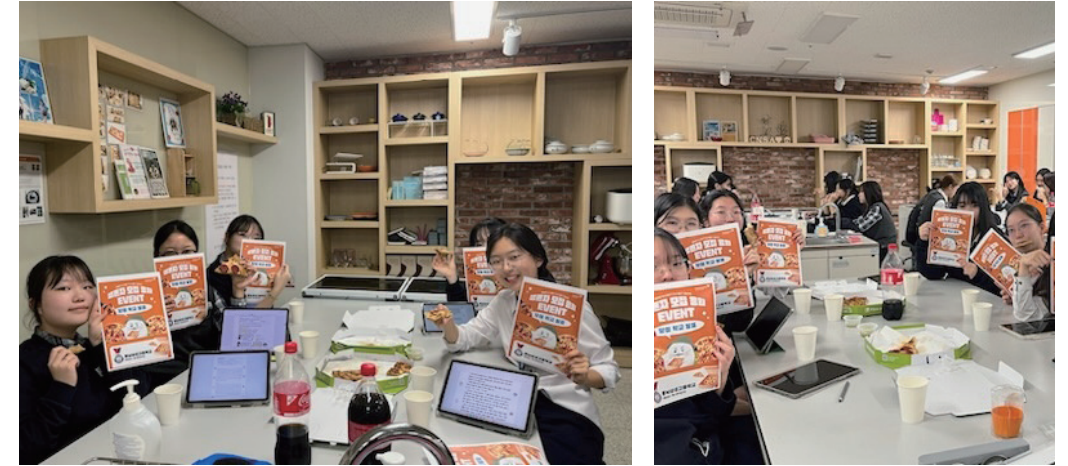
Q3. 공모전에 참가하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1 공모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읽게 되면서 여러 유익한 정보들을 새로 알게 되었다. 이 공모전을 하면서 글을 요약하는 것도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서 좋았다.
- 2 정말 재미있었고 뉴스 기사를 읽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황 사건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3 평소에는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 가지 뉴스를 봐서 사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봐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다.
- 4 공모전을 참가하면서 다양한 뉴스 기사를 요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어휘력이나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는 기술들이 성장했다고 느낀다. 또한 뉴스를 잘 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 뉴스 기사를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고, 읽기도 생각보다 쉬워서 뉴스를 읽어보고 요약하기를 가끔 해볼 생각이다.
- 5 기사를 찾아보고 읽으며 문해력 어휘력이 올라가며 날아 갈수록 감상문을 쓰기 수월해졌고 여러 분야에 대해 알게 되며 미래 직업에 관해서도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공모전 참가 후에도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 6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게 되었고 뉴스에 흥미가 생겼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겼다.

공모전 참여후기

피자 쏜다~!
접수 이벤트에 당첨된
공모전 참가자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충남삼성고등학교



Q1. 학교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1 충남삼성고등학교는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 해주며, 학생을 학생으로 대우하지 않고 리틀 어덜트로 대우해주는 학교입니다.
- 2 충남삼성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학교입니다.
- 3 충남삼성고등학교는 원하는 것을 내가 직접 선택해서 배우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고 다양해 여러 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 4 충남삼성고등학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주는 학교입니다.

Q2. 공모전 참가 동기는 무엇인가요?

- 1 바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 배우고 싶었고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싶었습니다.
- 2 뉴스를 많이 읽어볼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3 하루에 기사 하나씩 꾸준히 읽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4 평소에 뉴스를 잘 읽는 편이 아닌데 이번 기회를 통해 뉴스를 주기적으로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었습니다.

공모전 참여후기

피자 쏜다~!
접수 이벤트에 당첨된
공모전 참가자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충남삼성고등학교



Q3. 공모전에 참가하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1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제가 직접 하나의 이슈를 조사하고 기사를 써보고 싶습니다.
- 2 평소에 그냥 읽고 넘겼던 기사들을 저만의 말로 정리하고, 또 기사를 읽으며 느낀 점을 생각해보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 3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과제가 있어서 더 재미있게 제가 좋아하는 뉴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4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5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 속에서 오로지 제 선택으로 지식과 경험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공모전 측에 감사드립니다.
- 6 공모전에 참여하며 아직 모르는 세계 이슈가 많음을 느껴 뉴스를 읽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공모전 참여후기

피자 쏜다~!
접수 이벤트에 당첨된
공모전 참가자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대전동대초등학교



Q1. 학교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1 저희 학교는 크고 학생이 많아서 아이들과함께 재미있게 놀수있어요.
- 2 다양한 체험을 할수있는곳이 많고 체험학습도 재미있는곳으로 많이 보내줍니다.
- 3 우리 대전동대초등학교는 많은 이벤트와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밌는 학교생활과 올바른 활동을 할수있게 성장했습니다.
- 4 대전동대초등학교이고 보령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Q2. 공모전 참가 동기는 무엇인가요?

- 1 선생님의 추천과해보고싶어서하게되었다.
- 2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나가보자고 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 3 초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참가하게 되었다.
- 4 선생님께서 뉴스 읽기 뉴스 일기에 대해 말씀하셔서 함께 참여 해보자고 하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천동대초등학교



Q3. 공모전에 참가하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① 공모전에 참가하며 전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을 보며 재미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② 뉴스가 재밌다는걸 알았고 30개 쓸때는 어려웠지만 다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
- ③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뉴스를 쓰는것은 어려웠지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 ④ 평소 뉴스를 볼 일도 자주 없고 관심도 없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⑤ 피자를 위해 해봤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서운지 알게 되었고 다음부터는 뉴스를 많이 관심을 줘야하겠다.
- ⑥ 뉴스를 배울수있어서 좋았고 또 뉴스에 흥미를 가질수있어서 좋았어요.
- ⑦ 뉴스를 평소에 많이 안 보는데 뉴스읽기 뉴스읽기를 통해 뉴스를 많이 읽게 되어 우리나라와 세계가 지금 어떤지 알게 되어 좋았다. 또 뉴스읽기 뉴스읽기에서 자연에 관한 뉴스를 많이 읽었는데 자연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미래에 자연을 위해 쓰레기도 잘 버리고 생활해야 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 ⑧ 재미있었고 30개를 쓰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신기한 일들을 알아서 재미있었고 신기하고 놀랐다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다.
- ⑨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다쓰고나니 뿌듯했어요! 그리고 열심히한보람이 있네요! 3등!
- ⑩ 뉴스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뉴스읽기 뉴스읽기를 하며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재미있는 일을 뉴스읽기뉴스읽기로 통해서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수상 대표작 모음

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작	32
어린이(저) 수상작	36
어린이(중) 수상작	40
어린이(고) 수상작	44
청소년(중등) 수상작	48
청소년(고등) 수상작	52
성인 수상작	58
우수지도자	6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인터뷰

최나운 | 고운고등학교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일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최나운 학생입니다. 먼저 부족한 일기임에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이 공모전에 대해 접하게 되어 이번 기회에 시사에 관심을 가질 겸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뉴스도 잘 안 보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지금 배운 내용은 어차피 사회에 응용하기 위한 학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시사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하였던거 같습니다. 고등학생의 짧은 지식으로 뉴스일기를 작성하였는데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홈페이지에 종종 공모전 소식을 알려주는데 이 공모전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언어와 매체 시간에 뉴스읽기를 습관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가장 지금 흥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를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같은 분야의 뉴스만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 쉽게 뉴스를 전달해주는 라디오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톡톡, 뉴

스와 상식'이라는 약 5분이 안되는 라디오를 시청하고 이것의 연장선으로 해당 내용을 다양한 신문사에서 찾아보는 방식으로 뉴스를 읽어나갔습니다. 또한 최대한 신문사가 자주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던거 같습니다.

Q4. [나만의 TIP②] 제6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의 팁은 응용입니다. 뉴스 내용을 요약하고 끝내버리면 머리에도 잘 안 남고 생각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거나 철학자의 사상을 대입해보거나 상반되는 기사를 찾아보는 등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출처였습니다. 사실 저의 뉴스일기 특성상 한가지 뉴스일기를 작성할 때 하나의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하였기에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자료의 출처를 적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당시 저의 마지막 고3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에 한 뉴스일기를 작성하는데 1시간씩 투자하다보니 시간에 많은 압박감을 느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반복과 아침 조회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니 시간은 줄

어들었고 오히려 학기말에 탐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남들보다 덜 들이고 퀄리티 높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거 같아 좋았습니다.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확실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뉴스를 주기적으로 접할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한 뉴스만 보고 바로 믿지 않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탐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란 최고의 선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인터뷰

최나윤 | 고운고등학교

No. 3번

발간일: 2024. 06. 07

발간처: YTN 라디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본인 소개

본인 소개

나의 생각

나의 생각

QR Code

No. 7번

발간일: 2024. 06. 21

발간처: YTN 라디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본인 소개

본인 소개

나의 생각

나의 생각

QR Code

No. 8번

발간일: 2024. 06. 27

발간처: YTN 라디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본인 소개

본인 소개

나의 생각

나의 생각

QR Code

No. 11번

발간일: 2024. 07. 04

발간처: YTN 라디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본인 소개

본인 소개

나의 생각

나의 생각

QR Code

No. 14번

발간일: 2024. 07. 08

발간처: YTN 라디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본인 소개

본인 소개

나의 생각

나의 생각

QR Code

No. 25번

발간일: 2024. 07. 26

발간처: YTN 라디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본인 소개

본인 소개

나의 생각

나의 생각

QR Code

No. 26번

발간일: 2024. 07. 28

발간처: YTN 라디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본인 소개

본인 소개

나의 생각

나의 생각

QR Code

No. 26번

발간일: 2024. 07. 28

발간처: YTN 라디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 / 환경 / 경제

본인 소개

본인 소개

나의 생각

나의 생각

QR Code

수상자 인터뷰

어린이 저학년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 민지우 I 수상자 민지우입니다. 신문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저의 생각 주머니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상 이소은 I 제가 은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뿌듯해요. 저를 은상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읽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주 특별한 도서관 선생님께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상 김한겸 I 수상 할 수 있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상 김기쁨 I 너무 기쁘고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 민지우 I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홈페이지에 종종 공모전 소식을 알려주는데 이 공모전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언어와 매체 시간에 뉴스읽기를 습관화하고 미디어리터러시를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이다현 I 엄마와 함께 신문을 읽으며 스크랩을 하고 있었는데 뉴스일기 공모전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은상 이소은 I 평소 신문읽기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주 특별한 도서관 선생님께서 공모전에 한 번 참여해보라는 추천을 받고 도전하게 되었어요.

동상 박소윤 I 어머니께서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시고 추천해 주셨어요.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 민지우 I 지금 조선일보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가장 인상 깊은 기사를 고를때도 있고 여러분야의 기사를 골고루 접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다현 I 최근 화제가 되는 분야의 뉴스를 주로 보았고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의 뉴스 기사를 골랐어요.

은상 김한겸 I 최근 이슈가 되는 뉴스부터 고르기도 하였고 학생 입장에서 보기에 편한 뉴스들 위주로 골랐어요.

동상 최하연 I 뉴스 제목이 흥미로운 것을 위주로 골랐어요.

Q4. [나만의 TIP②] 제6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금상 민지우 I 신문을 읽고 기사요약을 한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기사내용과 적합한 방법을 찾아 정리를 했고 나의 생각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뉴스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은상 이소은 I 기사를 꼼꼼히 읽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형식으로 내 생각을 표현해요.저는 그림 그리는걸 좋아해서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은상 이다현 I 가족과 함께 뉴스 기사를 주제로 토론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어요.

동상 김린아 I 느낀점, 나의 생각을 많이 쓰고 글씨를 바르고 예쁘게 쓰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은 글씨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 민지우 I 매일 신문을 읽고 뉴스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뉴스일기를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들의 즐거움을 즐기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상 김한겸 I 뉴스와 관련된 제 생각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썼는거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도 잊지않고 작성했어요.

동상 최하연 I 뉴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담는 글과 그와 어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생각이 글에 들어있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글을 보고 내 생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그림이 글과 전혀 관련이 없으면 무슨 그림을 표현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동상 김린아 I 기사의 내용에 대한 이해,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 민지우 I 기사요약하는 방법을 한가지만으로 하지 않고 기사에 맞는 기사요약 방법을 생각 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은상 이소은 I 기사를 읽고 내 생각을 글로 자세하게 표현하는게 가장 어려웠어요.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꽤 많았어요.

은상 김한겸 I 아무래도 뉴스라 어려운 말들이 많았던게 가장 어려웠어요. 사전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부모님께 여쭙보기도 하면서 알게된 단어들이 많았던것 같아요 뉴스일기를 하면서 어휘가 늘것같아요^^

동상 박소윤 I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어서 노력하느라 손이 아팠어요.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 민지우 I 뉴스일기 작성 전에는 기사요약 하는 것도 나의 생각을 쓰는 것도 두줄 이상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뉴스읽고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기사를 요약하는 것도 나의 생각을 쓰는 것도 점점 수월하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상 이다현 I 새로운 단어를 많이 알게 되었고 글쓰기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은상 이소은 I 많은 상식과 정보를 얻게 된건 기본이고, 나의 생각을 글로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된것 같아요.

동상 김기쁨 I 세상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글자를 예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 민지우 I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생각의 놀이터

은상 이소은 I 세상을 보는 정보 책' 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문에 세상 정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은상 김한겸 I 나에게 신문일기란 아빠의 대화를 이끌어주는 계기이다.

동상 최하연 I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어린이 작가가 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어린이 저학년 수상작

월 21일 일요일

920
정기차 사용 촉진!! vs 유선 충전소!!
1월 16일 목요일
충전 어린이의 등아 쉼
장점 많을 기차

<벽국 왕실 월저성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인터뷰>

기자: 환경 지킴이 민지우님께서는 이번 영국 왕실에서 정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니까?

한경 지킴이 민지우: 네 저는 찬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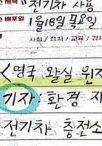
기자: 왜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한경 지킴이 민지우: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왕스쿨에는 각종 행사에 참가할때 이미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왕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곤 이용 한다면 시민들 역시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고압화재등의 안전도 무시할수는 없기 때문에 원자성의 유전에 훼손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대책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환경 지킴이 민지우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시민들 생활에도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전도 훼손되지 않는 대책이 신속히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1. 2대로 나타내는 작업
 (정수)

작업	정수
원시작업	4.16
작업	3.83
인공작업	3.67
조립작업	3.58
...	...
소배작업	3.08
정렬작업	1.86

2. 최상위와 최하위 작업 전이와 정자 (작업)

작업	정수
원시작업	1위
정렬작업	15위
...	...
작업	1위
정렬작업	15위

3. 나열 작업을 선택하는 16 작업?

- 원작, 종작, 원작작업
- 미국, 독일, 소배작업

4. (나열작업)

5. 원작과 일한 원작작업이 나온 작업 작업을 지어 줘
 6. 원작, 종작, 원작작업이 나온 작업 작업을 지어 줘
 7. 원작작업은 작업이 일한 작업에 종작작업이 붙는다. 그
 8. 원작, 종작, 원작작업이 나온 작업 작업을 지어 줘

No.

366

일기작성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우리마을에 왔다가 너무 많아서, 누가봐도 가리지 않게!

날도 맑고

연날

어린이 도서관

가방

날도 맑고

주제

사회 / 역사 / 과학 / 예술 / 문화유산 / 환경 / 인권 / 문화 / 역사 / 기타

3

<가사 정리>

영조
임영애

남자

조각

지금부터
10월까지

신장자는 집집
집을 찾아서 섬 바닷
을 순회해야 한다

바리는 집

사람들이 영조를
끌어다가 바리는, 집집
가 돌아와서 모습을 보고싶다

누구든지

영조집의 지파에게
된 이유

최근 폭탄 테러가 마을에 몇
몇이치고, 돌담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의 집을 불태우는 등
가해자가 연일

세금

약 2만3,500원
세금을 내면 된다.

누박할 때도
고고, 소고
지금이 없다.

<원조지>

영조에게 -

안녕 영조! 난 소년이다!

너희 섬 사람들이 널 못마땅해 하고있을 거야

내가 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내가 다른 마을에 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

사람들도 널 좋아하고,

내가 미친 건 아니야 계속공에 머무는

할지도 몰라. 그 여자 미사야 됐어, 고맙고 - 소년에게 -

<새 영조>

내가 그림 주변에 있는 나라의 한 시민이라면

영조 절대 안 살려, 가짜로 2만3천 원은 아니야.

은상 | 이소은

 No. 2	일일과제명 24년 5월 9일 목요일	
학습내용 중국 춘추관과 호국 유서만 이룬 9제 국지	교과목 24년 5월 24일	연차 이리미 5차
4차 (신라) 신라 / (고구려) 고구려 / (백제) 백제 / (한나라) 한나라 / (고대) 고대 / (조선) 조선	24년 5월 24일	7차 전진국



기사: 요양 /

중국과 한 춘추관과에서 우리 유서 만 이룬에 학생들의 숙제를
 놓치라는 국경을 만들었어. 그 이유는 학생들의 국경식각을
 보지 않고 만일 부당일 중국에 위태리라고 해. 만약 숙제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요.

하지만 학교가 내 눈을 국경에 대한 의점은 연결할 거야.





나의 생각

기초와 유서 만 이룬에 학생들의
 숙제를 금지하는 국경선 만들어요.

학생들은 생각해서 맞출지도 국경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꼭 숙제를 제기에 해야 할까요?

학교나 학생을 잘다워서 교육 시간에 하면 돼

그리고 중국 학생은 숙제가 많지 않아서 저나
 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숙제에
 쓸 나을 공부 습관도 생길거예요.







은상 | 이다현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수상자 인터뷰

어린이 중학년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 양하윤 I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느껴졌습니다. 더운 여름에 뉴스일기를 하나하나 쓰며 재미있게 쓰기도 했지만 힘들게 쓴 날도 많았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를 뽑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늘 옆에서 위로, 격려해주신 엄마, 아빠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더 힘내서 다음에도 또 참여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은상 김주원 I 힘들게 써서 낸 작품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은상 기은유 I 매일매일 열심히 작성해서 좋은 결과 받았는데 은상 수상을 하게 되다니 정말 기쁘고 뿌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 결과를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고 자랑스러웠어요.

동상 엄수빈 I 뉴스읽고 뉴스일기도 쓴 보람이 있었는데 상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더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 양하윤 I 엄마께서 공모전을 설명해 주시며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잘 읽지 않던 신문과 친해져 보고 읽어보는 시간으로 하고 글을 쓰는 능력을 더욱더 향상 시키기 위해 참여해 보았습니다.

은상 김주원 I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뉴스로도 일기를 쓸 수 있다는 엄마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기은유 I 가족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동상 유다원 I 부모님께서 평소에도 뉴스를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넷을 통해 이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참여하게 됐습니다.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 양하윤 I 뉴스일기를 시작했을 때는 엄마 아빠께서 여러 기사를 프린트 해주셔서 그것을 읽으며 내가 생각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기사를 뽑아서 일기를 썼 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동아'를 구독해 주셔서 매일 그 것을 읽으면서 좋은 기사가 있으면 쓰곤 했습니다. 또 고르는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과학과 역사분야와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회적인 부분도 많이 썼습니다.

은상 김주원 I 사회, 환경과 관련된 뉴스를 주로 읽었고 몰랐던 사실이나 새로운 지식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은상 기은유 I 저는 주로 환경 쪽이나 건강 쪽을 골랐는데요. 저는 딱히 고르는 기준은 없이 먼저 새로운 기사들을 읽어보고 골랐습니다. 만약 말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어린이 일보로 가서 읽어보세요.

동상 최혜윤 I 평소에 관심있었던 일과 제 수준에 맞는 뉴스를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Q4. [나만의 TIP②] 제6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금상 양하윤 I 느낀점, 나의 생각을 많이 쓰고 글씨를 바르고 예쁘게 쓰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은 글씨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상 김주원 I 뉴스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쓰고, 그림으로도 적절히 표현하면 됩니다.

은상 기은유 I 뉴스일기를 쓸 때 저는 뉴스 내용과 나의 생각을 중간중간 섞어서 썼습니다. 보통 뉴스 내용과 나의 생각을 나눠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중간 섞어서 쓰면 말이 더 자연스러워 질 수 있습니다.

동상 김서원 I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뉴스를 선택하고 내용에 맞는 내생각을 씁니다.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 양하윤 I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뉴스를 읽고 내가 가진 생각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상 김주원 I 뉴스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고 그리는 데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은상 기은유 I 기사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 건강 아니면 정치 등등... 저는 너무 글만 쓰기보다는 그림도 섞어서 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글만 쓰면 읽는 사람이 따분해 질 수도 있으니 적당히 그림도 넣으면 좋아요.

동상 엄수빈 I 뉴스기사에 대한 기자의 생각도 반영하였지만 독창적인 나의 의견도 적어볼수 있는 나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 양하윤 I 저는 끈기있게 계속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뉴스를 읽고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다른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놀고 싶은 것도 참으며 한장한장 정성껏 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은상 김주원 I 매일매일 쓰는 게 가장 어려웠고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작성 시간도 좀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은상 기은유 I 제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사를 고르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기사들이 없을 때는 뒤적 뒤적 거리다가 한참 뒤에야 고를 수 있었어요.

동상 유다원 I 주제를 고르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 양하윤 I 저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소식을 친구에게 듣거나 엄마아빠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신문을 읽고 부터 세상 소식을 직접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일기를 작성하며 기사를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고 글씨가 많이 예뻐졌습니다.

은상 김주원 I 그래도 한 장 한 장 쓰다 보니 전에 없었던 인내심과 끈기가 생긴 것 같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은상 기은유 I 뉴스 일기에 참여하기 전에는 뉴스에 관심이 없었고 읽지도 않았었는데 뉴스 일기를 쓰면서 뉴스를 읽고 뉴스를 통해 여러가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상 최혜윤 I 예전에는 뉴스에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겨났고,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동상 김서원 I TV 뉴스를 보면 이해하기 쉽고, 사회에 대해 잘 알게 됐어요.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 양하윤 I 글씨를 예쁘게 만들어 주고 뉴스와 친해지고 글을 쓰는 능력이 향상되는 기회!

은상 김주원 I 힘들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작품을 빛나는 것으로 평가해 준 보석.

은상 기은유 I 뉴스 일기는 '지식을 주는 나만의 지식 일기장'이다.

동상 유다원 I 제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탐험하게 도와주는 지도'였습니다.

어린이 중학년 수상작

[illegible][illegible]

		일기 작성일 2024. 06. 24	
No. 117	물품: 독도해양연가지 10원권 기념지 열매... 지역주민 300여명 참석		
No. 2024. 06. 24	연문	기장	기차
주위 (시간) (장소) (교통) (관객) (환경) (기대) (목적) (역사) (기대)			

올해도 독도해양연가지란?

지난 2023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다마의 산' 노래 제창회 대응해 2024년 5월 제창회 '독도지킴이 5인' 출범식에서 2025년까지 5년간 독도주변 현포대 기지를 운영하고 1105마에 위다 운영 발표 있다.

연가지 업무

① **홍보** 독도 주변 해양의 해양 생태계와 해양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한 ② 주로 해양생물학과 어업관련 시설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과학적 자료를 제공. ③ **홍보** 연변 '독도'를 한류로 주변 해역이 해양생물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하는 연구. ④ 독도 지식 기반의 이용을 위한 연구 및 환경 자원 개발. ⑤ **홍보** 독도 해양생태계를 조망해 해양을 비롯한 과학과 생태를 대상으로 올랐을 때 방문한 위다나 해양영도 등 소중하고 바다의 가치를 알리는 데 관심.

연가지 업적

① 140여 차례의 독도 현장을 돌고 국내 첫 독도 바다과학자회의의 유전자 정보 확인 ② 독해비밀비도지식공유사업으로 동 한국 미국을 발전 보고 ③ 독도 사냥꾼 물품 수검 개선 연안와 독도 사냥꾼 수검에 실패한 44개 등 4개 및 지역 한민 유지를 해를 하는 데도 크게 기여

독도에 대하여

경상북도 울릉군에 딸린, 바위로 이루어진 조그만 섬에 가장 동쪽 바다가 한쪽은 어장을 이루 이라고도 하며, 1,554㎡이다. 동남쪽으로 울릉 해상에 있다.

다케다마의 날이란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독도 영유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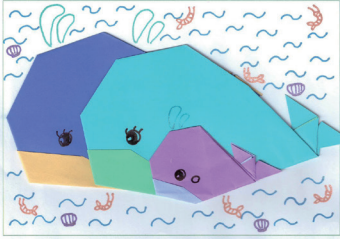


금상

		날짜 26 월/일/요일 2024. 07. 22	
날짜 2024. 07. 22 월/일/요일	주제 미국 CNN 뉴스에 최근 우리나라의 편의점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은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고 편의점 대다수가 외국계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편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CNN은 우리나라 편의점이 음식부터 가전제품, 일상생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지퍼한다. 제 거든 나라 편의점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음식 등이 살리기 편리하게 음식을 조리할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했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국제 / 문화 / 역사 / 기타	기사 요약 미국 CNN 방송이 최근 우리나라의 편의점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은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고 편의점 대다수가 외국계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편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CNN은 우리나라 편의점이 음식부터 가전제품, 일상생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지퍼한다. 제 거든 나라 편의점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음식 등이 살리기 편리하게 음식을 조리할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했다.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국제 / 문화 / 역사 / 기타	나의 생각 우리나라 편의점 특장점 ① 밥배를 뒀 수 있다 ② 편의점을 충전할 수 있다 ③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자가 가능하다 ⑤ 가전제품,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가까이 있으면 편의점이 있다. 편의점이 많은 이유는 ① 인구가 증가했다 ② 소비를 지치지 않으려 노력해서 편의점이 많아졌다 ③ 우리나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NN도 우리나라 편의점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편의점이 주류여서 가까이 있다. 편의점이 가까이 있고 한 줄만 앞섰는데 기다리는 것을 없었다.		



 No. 12-1	참가자명 월 21일
학교 [뉴스 브리핑] "고교들아~ 날자워!" 1월 18일	전원처 어난도 동아
가명 김재성 가	
시제 / 열거 / 글씨 / 정서 / 교과 연계 (필수) 국문 / 영문 / 역사 / 기타	



우	리	나	라	동	해	에	서	참	고	래
함	고	태	등	떨	중	위	기	고	래	
들	의	수	가	날	어	산	것	으	로	
학	인	됐	어	요	해	양	수	부	닌	
립	과	학	이	요	"2	0	2	3	번	
행	한	연	구	를	등	해	발	발		
어	요	창	고	래	는	길	이			


QR CODE

[illegible]

NO. **자주 쓰는 1000~5000원 지폐 수명 '5년'... 5만 원권은 '15년'**
 NO. 2024. 2 **한글** **이웃과 이혼해도** **한글**
수업 **시제 / 정치 / 경제 / 과학 / 역사 / 환경 / 교육 / 문화 / 사회 / 외국 / 기타 / 특강 / 특화**

오징어정리

*원상: 물체가 깨지거나 상함
 *원상: 사용되다
 *원상: 사용되다
 *원상: 사용되다

기타내용 정리 (문단)

Q 금액별로 왜 수명이 다를까요?
 A 적은 금액의 화폐원주를 거스름돈이나 간단한
 형질물에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Q 최근 들어 지폐의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A 사람들이 일을 지체보다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모바일 서비스 등 비현금 결제 수단을 많이 사용하게 되
 Q 찢어지거나 볼에 다 일부러 손으로 지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도로 등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형지를 알아볼
 정도로 훼손됐을 경우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새까 나는 새까, 물만 수명이 있다
 ○ 새까 했다 왜냐면 돈은 살아있지 않
 이다. 그래서 수명이 있다는걸 알고 함 산
 았고 돈은 소중히 사용해야 겠다.

동상 | 최승은

	URL	https://medialy.co.kr/news/read?newsId=491269366&BBS12480&mediaCode=0-257	
No.	4-0	입력일시	7.7
NCO 제목	'더워졌는데 갈리기는 해' 주위다칠, 역시 불사 때문?		
NCO 등록일	2024.7.7 11:27	연필	이대일리
		기재부	김정환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문화 / 특종 () 뉴스 / 가담 / 분야 ()		

동상 | 최혜윤

수상자 인터뷰

어린이 고학년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 홍수민 I 처음에는 한 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는데도 저를 뽑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학년 1등이라는 결과를 알게 된 순간 엄청 보람찼고, 또 뿌듯했습니다. 힘들게 노력한 만큼 기뻐합니다.

은상 김연아 I 너무 운이 좋은 나입니다~ 대부분 열심히 했을텐데 내가 이런 큰 상을 받다니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은상 송라임 I 평소에 열심히 작성하던 신문일기인데 이번 기회에 상을 타게 되어 놀랍고 기쁩니다.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기대감도 생겨서 저 자신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상 김강 I 상을 받게 되어 기뻐요.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 홍수민 I 제 논술학원 선생님이 뉴스를 매일매일 읽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하셔서 매일 뉴스를 읽어보자는 마음으로 공모전에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은상 이지윤 I 저는 평소에도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여, 어머니께서 공모전을 찾으시다가 저에게 권유해주셔서 어휘나 뉴스 읽는 습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송라임 I 처음에 학교에서 이 대회를 접하게 되었고 마침 평소에 쓰던 신문일기여서 점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후 용기를 내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동상 박아영 I 학교 선생님께서 권유해주셨어요.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 홍수민 I 제목이 가장 흥미로운 뉴스로 시작해 요즘 핫한 이슈, 또는 제가 평소에 관심있던 분야 위주로 뉴스를 골랐습니다. 때로는 색다른 주제를 도전해봐 더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은상 김연아 I 특별한거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내가 하고 싶은거 했습니다~가끔 엄마 눈치보고 엄마가 좋아 하실만한거 일년에 한두개 정도 했어요.

은상 송라임 I 저는 제목을 차례대로 보며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 나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 기사 등을 위주로 골라, 주로 사회 부분을 중점에 뒀습니다.

동상 송이루 I 저는 주로 요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를 주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아 사회면에 있는 기사를 골라 일기를 썼습니다.

Q4. [나만의 TIP②] 제6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금상 홍수민 I 뉴스일기를 하다보면 30개 이상이라는 엄청난 분량으로 쓰는 것이 귀찮아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귀찮은 마음을 버리고, 꾸준히 쓰다보면 어느새 저처럼 85개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은상 이지윤 I 저는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그래프나 신문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진을 검색하여 사용하였고, 마인드 맵이나 그림같은 간단한 표현방법은 눈에 띄도록 펜이나 형광펜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은상 송라임 I 저는 표현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써 좀 더 알찬 일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쓴다면 자기자신만의 뚜렷한 생각이 돋보일 것입니다.

동상 임빈 I 기사 요약은 간단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 나타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사에 관련된 그림도 간단하게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 홍수민 I 뉴스일기라고 하면 뭐든지 글로 표현하고, 딱딱한 사실과 생각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뉴스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뉴스에 나온 사실과, 자신의 생각을 흥미롭게, 조금 더 재밌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글과 딱딱한 사실보다는 그림, 스티커등으로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은상 김연아 I 기사 내용 요약과 모르는 단어는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사와 함께 그림그리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은상 송라임 I 저는 표현력과 솔직한 생각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신문을 고르는 기준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최대한 알찬 기사를, 내 생각을 뚜렷하게 쓸 수 있는 기사를 위주로 쓴다면 멋진 뉴스일기가 될 것입니다.

동상 박재민 I 뉴스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부분을 중요시 여겼어요. 뉴스 내용이 왜곡되진 않았는지 생각하며 같은 주제에 대한 뉴스를 다양한 곳에서 읽어보았습니다.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 홍수민 I 꾸준히 쓰는 것이 뉴스일기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너무나 완벽한 일기를 쓰고 싶어 하나를 쓰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만큼, 하나를 쓰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꾸준히 읽고 쓰고 읽고 쓰는 무한반복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은상 이지윤 I 제가 어려웠던 점은 하나의 뉴스를 어느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바라보기 위하여 여러 자료들을 탐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동상 이강희 I 활동이 중복되지 않게 창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 홍수민 I 뉴스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뉴스를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이슈등에 관심도 없었고, 또 알고 있지도 않았지만 뉴스를 다양하게 접하게 되면서 내 주변 일들과 사회의 문제점등을 알게 되었어요. 엄청난 양의 지식들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온 점이 제가 얻은 점이지요.

은상 이지윤 I 이번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자연스레 사회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꾸준히 뉴스를 접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키우게 된 것 같습니다.

동상 김강 I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됐어요.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 홍수민 I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제게 돋보기입니다. 평소에는 무시해 오던 사회 이슈들을 더 크게,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뉴스 읽기 뉴스일기이기 때문입니다.

은상 김연아 I 안보면 보고 싶고 그리운 존재~ 그래서 매일 찾게되는 존재

동상 김강 I 뉴스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어린이 고학년 수상작

[illegible][illegible][illegible]



1차 7월

창간호출간일: 6.30

1차 1호 발행: 1월 10일

1차 2호 발행: 2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3호 발행: 3월 10일

1차 4호 발행: 4월 10일

1차 5호 발행: 5월 10일

1차 6호 발행: 6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7호 발행: 7월 10일

1차 8호 발행: 8월 10일

1차 9호 발행: 9월 10일

1차 10호 발행: 10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11호 발행: 11월 10일

1차 12호 발행: 12월 10일

1차 13호 발행: 1월 10일

1차 14호 발행: 2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15호 발행: 3월 10일

1차 16호 발행: 4월 10일

1차 17호 발행: 5월 10일

1차 18호 발행: 6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19호 발행: 7월 10일

1차 20호 발행: 8월 10일

1차 21호 발행: 9월 10일

1차 22호 발행: 10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23호 발행: 11월 10일

1차 24호 발행: 12월 10일

1차 25호 발행: 1월 10일

1차 26호 발행: 2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27호 발행: 3월 10일

1차 28호 발행: 4월 10일

1차 29호 발행: 5월 10일

1차 30호 발행: 6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31호 발행: 7월 10일

1차 32호 발행: 8월 10일

1차 33호 발행: 9월 10일

1차 34호 발행: 10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35호 발행: 11월 10일

1차 36호 발행: 12월 10일

1차 37호 발행: 1월 10일

1차 38호 발행: 2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39호 발행: 3월 10일

1차 40호 발행: 4월 10일

1차 41호 발행: 5월 10일

1차 42호 발행: 6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43호 발행: 7월 10일

1차 44호 발행: 8월 10일

1차 45호 발행: 9월 10일

1차 46호 발행: 10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47호 발행: 11월 10일

1차 48호 발행: 12월 10일

1차 49호 발행: 1월 10일

1차 50호 발행: 2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51호 발행: 3월 10일

1차 52호 발행: 4월 10일

1차 53호 발행: 5월 10일

1차 54호 발행: 6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55호 발행: 7월 10일

1차 56호 발행: 8월 10일

1차 57호 발행: 9월 10일

1차 58호 발행: 10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59호 발행: 11월 10일

1차 60호 발행: 12월 10일

1차 61호 발행: 1월 10일

1차 62호 발행: 2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63호 발행: 3월 10일

1차 64호 발행: 4월 10일

1차 65호 발행: 5월 10일

1차 66호 발행: 6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67호 발행: 7월 10일

1차 68호 발행: 8월 10일

1차 69호 발행: 9월 10일

1차 70호 발행: 10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71호 발행: 11월 10일

1차 72호 발행: 12월 10일

1차 73호 발행: 1월 10일

1차 74호 발행: 2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75호 발행: 3월 10일

1차 76호 발행: 4월 10일

1차 77호 발행: 5월 10일

1차 78호 발행: 6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79호 발행: 7월 10일

1차 80호 발행: 8월 10일

1차 81호 발행: 9월 10일

1차 82호 발행: 10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83호 발행: 11월 10일

1차 84호 발행: 12월 10일

1차 85호 발행: 1월 10일

1차 86호 발행: 2월 10일

창간호 발행: 6.30

1차 87호 발행: 3월 10일

1차 88호 발행: 4월 10일

1차 89호

[illegible][illegible][illegible]

No. 20	학기개명절 2024-07-27 토요일		
뉴스 제목	비밀의 나라들 1... 해외 신악 연구가들의 놀라운 발견		
뉴스 번호	2024-07-25	KBS 뉴스	김세환 기자
주제	시화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 국제 / 문화 / 역사	기타	의학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
바로 바이러스. 이 들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말해서, 그로
인해서 주변사람에게 전파되고 두려움을 심어준다.
다행히 최근엔 항사신 치료, 항바이러스 약들이 나와서
신약의 약을 치료에 쓰는 것까지도 있는 것이다.
이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는 반드시 읽자.



암



NEWS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 특징

- 항체치료제, 도성 단백질 제거제, 치료제인 약제
- (신약, 2세대형의 특징) 미국과 일본 등에 출시되었는데 임상시험에서 2세대형
치매 신약들 중 좋은 것은 결과 나온
- (신약, 2세대형의 특징) 최근 미국 의약품연구 회사가 발표하여 임상시험에서 3세대형
치매 신약들 중 좋은 것은 결과 나온
- 치료제나 비특정 효과의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있음



암과 치매 환자

인간에게 있어, 한 번도 해독되지 않은 신약이다. 사실, 모든
병자에게서 암이나 치매는 같은 것 같은 사람들도 같은
치료제를 받고 있는데도 결과가 다르다. '신약의 노년'은 나
가 아닌 암과 치매의 존재를 나타내는 암과 치매의 결과물이다. 암
과 치매의 노년은 암과 치매의 존재를 나타내는 암과 치매의 결과물이다.
신약의 노년은 암과 치매의 존재를 나타내는 암과 치매의 결과물이다.
신약의 노년은 암과 치매의 존재를 나타내는 암과 치매의 결과물이다.
신약의 노년은 암과 치매의 존재를 나타내는 암과 치매의 결과물이다.



동상 / 박재민

수상자 인터뷰

청소년 중등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 박시영 I 정말 기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회를 늦게 시작해서 바쁘게 일기 30장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나날들이 보상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상자 목록을 보았을 때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라서 5번은 다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 생활에 많이 활용하고 있어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상 이하람 I 너무 기쁩니다. 기사를 통해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래친구들도 신문을 많이 읽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은상 임윤 I 중등부분 은상 받게 된 임윤입니다. 뉴스일기에 참여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느껴서 상은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일기를 썼는데 2. 은상을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동상 지다을 I 제출한지 오래돼서 처음에 선생님께서 상받았다고 연락오셨을 때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 상을 받은 거여서 기쁘고 뿌듯했어요!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 박시영 I 선생님과 오빠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이하람 I 작년에 참가하여 좋은 영향을 받아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박서연 I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고,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 엄지후 I 학교에 게시 되어있는 안내장을 보고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경험을 쌓을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 박시영 I 그날의 기념일이나 전날과 다른 종류의 뉴스를 골랐던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에 환경과 관련된 뉴스를 썼다면 다음날에는 건강과 관련된 뉴스를 쓰는 등 뉴스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은상 임윤 I 전에도 뉴스일기에 참가를 했었는데 뉴스일기를 하면서 국어 실력도 늘고, 사회 수업도 지루하지 않고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계속 뉴스일기를 썼습니다.

은상 박서연 I 처음에는 관심있는 주제의 뉴스만 보게되어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뉴스를 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뉴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사를 다양한 신문사의 뉴스로 함께 비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동상 황수아 I 관심있는 주제를 주로 선택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더 열심히 읽고 싶어지고 탐구하고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이신문을 구독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인터넷 신문을 주로 봅니다.

Q4. [나만의 TIP②] 제6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금상 박시영 I 짧은 시간동안 만들어서 비법 딱히 없고 저는 최대한 책상에 앉아있는 끈기가 비법인것 같습니다.

은상 임윤 I 기사를 읽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읽으면 내용이 많은 기사여도 쉽게 읽히고 요약도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고 나서 나의 생각과 의견을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며 읽으면 일기를 쓸 때 생각을 더 풍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은상 이하람 I 뉴스일기를 쓸 때 뉴스와 관련된 그림을 다채롭게 그리고 여러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글로 표현하기

동상 박서이 I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 어떤 구조로 글을 쓸지 생각해보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 박시영 I 디자인 보다는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가고 뉴스일기 하나하나를 작성하는 정성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상 박서연 I 뉴스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뉴스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그림 또는 도표를 통해 한눈에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은상 임윤 I 뉴스일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기사와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사를 다양한 언론사에서 읽고, 같은 기사도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비교해보며 읽으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사를 보며 든 생각을 잘 정리해서 뉴스일기를 쓰면 내용을 더 풍성하게 쓸 수 있습니다.

동상 지다을 I 내가 작성한 뉴스일기를 읽어봤을때 재미있고 쉽게 읽히는 데에 집중을 했던것 같아요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 박시영 I 저는 뉴스읽기를 늦게 시작해서 하루에 하나씩 일기를 써야 겨우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하루에 일기 한 편을 다 작성하는것이 힘들었습니다.

은상 이하람 I 꾸준히 하기 (중학생이라 학교시험이 있어 꾸준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상 엄지후 I 대중들에게 민감한 부분의 느낀 점을 쓸 때입니다.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 박시영 I 뉴스일기 전에는 학교에서 주는 활동지의 내용이 조금 빈약했었는데 뉴스일기를 작성하고나니 내용이 풍부해졌고 또 활동지에 그림을 그리는 디자인 감각이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뉴스일기를 통해 많은 뉴스를 읽고 나니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은상 이하람 I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기사를 통해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비판적능력 생겼다.

동상 박서이 I 끈기를 길러주는 지식의 일기장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 박시영 I 제 마음속 말라버린 도전정신에 물을 뿌려준 작은 물뿌리개인 것 같습니다.

은상 박서연 I 새로운 습관: 생각하고 정리하기

은상 이하람 I 한 장의 신문이 한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동상 황수아 I 저에게 뉴스일기란 삶의 지표 입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무얼 위해 열심히 했는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이뤘다는 성취감도 갖고 상식도 늘 수 있으니 앞으로도 내 삶의 지표로 기사읽기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수상자 인터뷰

청소년 고등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 방시현 I 처음으로 참가한 공모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 몰라서 수상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 한참을 멍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모전 기간동안 열심히 준비한 저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면서 제 자신이 뿌듯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시험공부에 지쳐서 몇 번이고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차곡차곡 저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기에 이번 수상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상 강가연 I 학교 동아리에서 시작했던 공모전으로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은상 이민정 I 수상하게 되어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청소년기 끝자락에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동상 최하늘 I 잊고 있었는데 수상 소식을 받으니 뿌듯하면서도 전국을 대상으로한 공모전이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일을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까지 두면서 꿈을 향해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읽고 쓰는 활동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뉴스읽기일기를 쓰면 수행평가나 저의 주장을 펼치는 활동에서 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6회 뉴스읽기일기에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 이런 수상 소식에 대해 말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 방시현 I 여느때처럼 학교를 등교하는데, 벽에 붙어있는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가모집 홍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희망진로가 미디어쪽이었기에 흥미롭게 느껴졌고, 처음보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은상 김수연 I 학교에서 지면으로 된 신문을 읽고 탐사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저희 국어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강가연 I 국제학교에서 찾은 유일한 한국어 저널 동아리에서 공모전을 알게 된 길이었습니다. 학교 선배와 선생님의 추천과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동상 김지후 I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학교 동아리 '뉴스 리터러시'에 흥미를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한 후, 뉴스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며, 매주 신문을 받아 뉴스를 스크랩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뉴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경험을 공모전에서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 방시현 I 저의 관심사인 미디어&문화와 최근 사회 이슈 위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넓은 시야로 다양한 뉴스를 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저의 관심사 뿐만 아니라 정치, 법, 환경, 경제 등등 정말 많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또한, 뉴스를 고르는 저만의 기준은 '이 기사가 말하는 핵심정보를 내가 이렇게 정리한다면 정보전달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에 부합했던 뉴스들이었습니다.

은상 강가연 I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BBC KOREA와 같은 해외 뉴스 사이트에서 찾아보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여러 뉴스 사이트를 돌아보며 더욱 정보가 많고 편파적이지 않은 기사를 골랐습니다.

은상 김수연 I 큰 이슈가 되거나, 제 관심사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동상 나다현 I 주로 사회 분야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골랐습니다.

Q4. [나만의 TIP②] 제6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금상 방시현 I 핵심정보 정리와 추가적인 정보탐색입니다. 저는 기사내용의 요약과 제 생각정리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 분야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것이나 기사를 읽고나서 드는 궁금점을 추가적으로 검색해서 뉴스일기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이 방법을 중점으로 뉴스일기를 정리하다보니,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도 새롭게 알게 되어서 뿌듯했고,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해보면서 제가 점점 성장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상 강가연 I 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한 그림과 그래프를 통해 독자에게 흥미를 돋구거나 어려운 내용은 이해를 돕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글쓰기와 그림이 어울어지면 더욱 풍성한 뉴스일기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상 이민정 I 좋은 뉴스를 고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는 과정을 즐길 수 있고, 특정 주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뉴스를 주로 골라 작성했습니다.

은상 김수연 I 뉴스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매체들을 접해보고, 훗날보면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영화를 엮어서 생각하곤 했는데요, 영화의 특성상 장면들이 시각적으로 와닿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상 오지민 I 뉴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활동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핵심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후에는 뉴스 내용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찾거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는 등 추가 조사를 하면서 뉴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 방시현 I 내가 누군가에게 이 기사에 대해 발표한다면 어떤 정보를 정리해야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글쓰기 재능과 핵심 키워드로 내용을 정리한다고 해도, '적절한 조합과 임팩트의 감각'이 없으면 그저 맛있는 완성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너무 난잡해보이지 않으면서 그 분야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목을 끌 수 있는 정보전달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은상 김수연 I 제가 뉴스를 보며 했던 모든 생각들을 다시금 되짚어보며 정리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상 이민정 I 흥미를 우선시하고, 데이터 분석에 신경 썼습니다. 무엇보다 즐기며 추억을 만들자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또한 뉴스에 사용된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며 데이터를 활용해보고 싶었습니다.

동상 조한나 I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총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여러가지 색깔을 많이 사용하여서 꾸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단지 스티커랑 그림 등 큰 요소로 꾸미는 것만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큰 요소들로 꾸미는 것을 못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색조화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느낀점 작성입니다. 평범한 느낀점이라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작성하는 것보다 평범한 나의 느낀점을 작성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동상 정은서 I 저는 의견을 적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 했는데요. 평소에 저는 의견을 활발하게 내비치는것보다는 묵묵히 팀원들을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뉴스 읽기를 하면서라도 저의 의견을 내비치고 정리할 수 있게 성장해보자라는 마음에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임했습니다.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 방시현 I 제가 읽은 뉴스를 어떻게 정리하면 다른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구상한 아이디어 덕분에 매일매일 후회없는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은상 강가연 I 공모전을 조금 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출까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때문에 글씨체가 일정하지 않고 가끔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들을 전부 담지 못하고 글의 맥락이 매끄럽지 않은 일기도 있었습니다.

은상 이민정 I 고3이라 학교 일정 등 다른 일정과 겹치며 뉴스일기를 작성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스일기를 작성하는 시간이 즐거웠기에 가끔 밤을 새며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은상 김수연 I 다양한 형식으로 일기를 써보고 싶었는데, 제 뜻대로 구상되지 않았던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동상 김지후 I 제가 어려웠던 점은 기술이나 이론 위주의 기사를 읽고 그 줄거리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은 천천히 읽고 뉴스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형광펜을 칠하며 읽어 내리고, 어려운 단어와 이론들은 추가로 검색하여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방법 덕분에 보다 명확하고 깊이 있는 스크랩이 가능했습니다.

동상 최하늘 I 아무래도 꾸준히 한다는게 어려웠습니다. 시험기간이나 어떤 특정한 일정이 있는 날에는 깜빡해서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지속되려는 어느 순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동상 나다현 I 정치와 경제 관련 기사는 내용도 어렵고 생소한 단어도 많아 기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는데 가장 어려웠습니다.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 방시현 I '꾸준함'의 성과를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가올 순간들을 위해 지나간 순간들에 머물렀던 제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꿈이 진짜 꿈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제 꿈을 향해서 매일매일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강가연 I 평소에는 뉴스를 라디오로만 청취했는데 이번 기회에 활자로 된 기사들을 읽으면서 기사문 작성 방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써둔 나의 기사문과 뉴스 사이트에 있는 기사들을 비교하며 나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상 이민정 I 뉴스를 보면 저도 모르게 '아, 이거 뉴스일기에 이러한 생각을 적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였다면 짧게 지나갔을 생각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깊게 생각하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 사용할지 생각하는 버릇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상 김수연 I 전에는 쏟아지는 정보들을 생각 없이 그저 모두 받아들이고 끝났었다면, 뉴스일기를 작성한 이후로는 심도있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일기를 통해서 뉴스의 맥락을 살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기록하게 되면서 정보를 더 잘 소화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니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 소비의 질이 한층 높아졌다고 느낍니다.

동상 오지민 I 뉴스일기를 작성하기 전에는 뉴스를 단순히 읽고 넘기거나 SNS,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일기 작성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고 자투리 시간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변화가 제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 뉴스 일기를 작성하면서 얻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 방시현 I 저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하나의 바다'입니다. 달빛에 비치는 바다도 찰랑거릴 때 더 아름답고 빛나는 것처럼, 저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펼칠 수 있었기에 그 순간순간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던 것 같고, 가장 반짝였던 것 같습니다.

은상 강가연 I 나에게 뉴스 읽기 뉴스 일기는 진주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조개에서 값비싼 진주를 발굴하고 다듬어 하나의 보석이 되는 것처럼 여러 뉴스 사이트를 돌며 뉴스를 선택하고 그 글 속 담겨있는 사실과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은상 이민정 I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었고, 뒤돌아보면 그동안의 선이 보이며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상 김수연 I '나침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더 나은 저로 성장하게 하는 등 유익한 길로 인도한 것이 바로 뉴스읽기 뉴스일기이기 때문입니다.

동상 나다현 I 마라톤이다. 공모전 이후에도 뉴스 일기를 쓰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상 정은서 I 아저는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꾸준한 태도로 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더 넓은 식견을 키울수 있었고 자연스레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생긴 변화에 큰 의미를 두게 되어 '새로운 변화'로 한줄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고등 수상작

[illegible]



No. 5 일기작성법 2024. 06. 11

주제 예술지연, 상상도 문화창고에서 활동한 미디어아트 선보여

날짜 2024. 06. 10 연락처 문의처 기밀명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문화 / 과학테크 / 환경 / 국제협력 / 역사 / 가족

문법 아트는 현대 예술의 중요한 흐름 하나로서, 관람자가 작품을 몰입하게 만드는 기술적, 사회적 요소가 융합된 현대 예술이다. 이는 관객의 정서와 기술적 혁신이 결합된 결과물로, 흥미롭고 매력적인 환경을 창출한다.

내용 올림픽 미디어 아트는 관람자가 작품 안에서 깊이 경험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공공간이나 미술관에 설치된 작품은 관람자가 작품 속으로 뛰어들어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은 시각적으로 재현되지 않고, 움직임, 신체적 반응에 의해서도 진정적인 감각적 충동을 자극한다. 또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는 기술 발전과 예술의 융합을 보여준다. 예술가와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을 창출하며, 관람자들이 그 속에서 자신만의 개인적 체험을 하게 된다. 이는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새로운 창조적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 다른 중요한 현대 문화 미디어 아트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예술 작품에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정치적 문제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회적 인식을 촉진하고, 관객들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해설 몰입형 미디어에 따르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술적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며, 고급 기술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설치 작업은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너무 많은 기술적 요소가 작품의 핵심 메시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는 기술적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예술적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효과와 강점은 관람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해설 이해는 각자의 문화적 배경, 상황,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해설 한국의 발전으로 인해 경험을 얻은 한성적인 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어 관객들에게 더 깊은 경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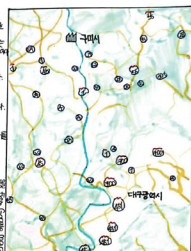
No. 3	출발일자 2023. 10. 10	
보고자 다대시 "시민 생활 향상하는 기쁨을 발산... 구민에게 알릴 만큼"		
보고자명 2023. 10. 09	현관명 신원길	지역명 장안면
주제 시정 / 민정 / 교육 / 문화 / 복지 / 환경 / 안전 / 의료 / 기타()		

다대시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대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대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대시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대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민 생활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대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대시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대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상 | 강가연

[illegible]

No. 21	일자기명명 2024.07.25		
No. 07 개역	"말 목소리 똑같으데", 인공지능 '딥보이스' 악용한 사기까페		
No. 02 보도요	2024.07.25	원문출 KBS	가짜출 서윤덕 기자
주제	사회 / 범죄 / 교육 / 경제 / 과학기술 / 건강 / 국제 / 문화 / 역사 / 시·지		

Q

만약 전화가 너머에서 가족이나 친구 목소리로 돈을 보내달라는데, 그 목소리가 가짜라면?

KBS 보도에 실린 실제 사례를 보면, "안구 보드를 쓴다 갈라 땀나는 줄이 관자를 땀을 흘리고 있다" 같은 말로 돈을 받은 여성(이하 A)이 있었다. 다행히, 전화를 끊고 나서도 판단은 확고 할까? 직감에 따라 배려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음역과 관공구 말고 가짜로 바꿨었다는 A(이하 B) 열매, 역시 똑같은 인공지능 사기꾼을 가능하게 해 줬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목소리가 실제 가짜의 목소리와 얼마나 비슷한지 실험해봤는데...?

인공지능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음성 "형, 진짜 미안한데 급해서 그만대 일단 전화 끊어주세요"

통화기자 "음, 뭐, 보내주면 돼? 이해해줄게"

인공지능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음성 "형, 진짜 미안한데 급해서 그만대 일단 전화 끊어주세요"

통화기자 "음, 뭐, 보내주면 돼? 이해해줄게"

실험 후 ...

사실 인공지능으로는 목소리만 면에서 실험하기가 있었지만 ...

통화기자 "음, 뭐, 보내주면 돼? 이해해줄게"

인공지능 목소리 "안녕하세요?"

#1.2인의 해킹방식 계간 #1.2인의 딥보이스 보이스 피싱 예방 방법?

1 주의 깊은 태도 유지하기!

-> 상대방이 이기거나 행방이 의심스러울 때, 그걸 무시할지 말고 주변을 살펴보고 대처하기
 -> 상대방이 중요한 돈을 요구할 거냐, 만나자 한다고 강요하는 경우에는 바로 의심하고 신용거래 대외하면서 금한 금액은 보내주기
 -> 전화로 2000원을 받아가는데도 의심이 들고, 일단 금한을 걸거나 아니면 만수무강한 행방에서 상대방에게 다른 권유를 사자면 후회할 당사자에게 전화통을 걸기
 -> 만약 상대방 전화가 되지 않는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자. 그리고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보자. 그리고 후회할 행방을 취하지

2 기술적 안전 대책

->음성도 보도록 하고, 음성도 해킹당하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나 사기범들을 방지하기
 ->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사기범을 막기

금상

[illegible]

No. **20**
일기작성일자 **20240905**

h.c. 목차 **편입생 주 1회 이상 가고 갈때마다 1막 710원 쓴다**
h.c. **20240904**
이전과 **한겨레**
오늘과 **윤선희**

지역 **서울 / 강지 / 교육 (정리)**
학급 **8학년 8집 / 학급 / (정리) / 학사 / 7학년**

기사요약

외박이 들어 전의집에서 1회 평균 지불한 금액이 1만원을 넘어, 3명연
외박 매회 결제 2957. 개발을 여는 2023. 나하났다. 또 연거미 금액
외박 생활의 서비스를 경험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전의집이 오래된
생각을 출장 물음으로 지리 매점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쉬운 경제 뉴스 만들기 >

1600명 대상
3명연 2957원

<= 22.6% ↑

< 주 1회 이상 방문 >

76.7%

< 생활권이 세는 여름 경험 >

62.1% (3명연마다 20.5%)

< 전의집에서 봄만 외박을 했 >

응답 비율 2.8% (14명)

< 지역 사는 상품 >

7만 원 26.9%
31.1%
19.4%
21.6%

< 답례품 종류 항목 >

① 5.7%
② 5.7%

< 전의집에서 봄만 외박을 했 >

응답 비율 2.8% (14명)

< 고령자와 소득 관계 >

다양성과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생물학 연구)

3.67점 → 4.0점

최현민

(수리학과 2024. 9. 20.)

< 생활권이 세는 여름 경험 >

62.1% (3명연마다 20.5%)

< 고령자와 소득 관계 >

다양성과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생물학 연구)

3.67점 → 4.0점

최현민

(수리학과 2024. 9. 20.)

< 생활권이 세는 여름 경험 >

62.1% (3명연마다 20.5%)

< 고령자와 소득 관계 >

다양성과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생물학 연구)

3.67점 → 4.0점

최현민

(수리학과 2024. 9. 20.)

< 생활권이 세는 여름 경험 >

62.1% (3명연마다 20.5%)

< 고령자와 소득 관계 >

다양성과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생물학 연구)

3.67점 → 4.0점

최현민

(수리학과 2024. 9. 20.)

< 생활권이 세는 여름 경험 >

62.1% (3명연마다 20.5%)

< 고령자와 소득 관계 >

다양성과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생물학 연구)

3.67점 → 4.0점

최현민

(수리학과 2024. 9. 20.)

< 생활권이 세는 여름 경험 >

62.1% (3명연마다 20.5%)

< 고령자와 소득 관계 >

다양성과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생물학 연구)

3.67점 → 4.0점

최현민

(수리학과 2024. 9. 20.)

< 생활권이 세는 여름 경험 >

62.1% (3명연마다 20.5%)

< 고령자와 소득 관계 >

다양성과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생물학 연구)

3.67점 → 4.0점

최현민

(수리학과 2024. 9. 20.)

< 생활권이 세는 여름 경험 >

62.1% (3명연마다 20.5%)

< 고령자와 소득 관계 >

다양성과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생물학 연구)

3.67점 → 4.0점

최현민

(수리학과 2024. 9. 20.)

< 생활권이 세는 여름 경험 >

62.1% (3명연마다 20.5%)

< 고령자와 소득 관계 >

다양성과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생물학 연구)

3.67점 → 4.0점

최현민

(수리학과 2024. 9. 20.)

< 생활권이 세는 여름 경험 >

62.1% (3명연마다 20.5%)

< 고령자와 소득 관계 >

다양성과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생물학 연구)

3.67점 → 4.0점

최현민

(수리학과 2024. 9. 20.)

< 생활권이 세는 여름 경험 >

62.1% (3명연마다 20.5%)

< 고령자와 소득 관계 >

다양성과 혜택에 대한 만족도

(생물학 연구)

3.67점 → 4.0점

최현민

(수리학과 2024. 9. 20.)

< 생활권이

[illegible]

수상자 인터뷰

성인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 국동균 I 처음에는 수상을 목표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시작한 공모전이었지만, 작성할수록 뉴스를 읽고 일기를 쓰는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뉴스 일기 작성은 매일 새로운 목표가 되어 저에게 활력을 주었고, 그 결과가 뿌듯하게 돌아와서 더욱 기쁩니다.

은상 손옥주 I 꿈만 같습니다. 두 달 동안 아이와 함께 열심히 노력했는데 큰 상을 받게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축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상 김광남 I 뉴스에 관심이 많아 매일 읽고 있는데, 뉴스 일기를 쓰니 세상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생각을 다듬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뉴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수상으로 이어지니 감사합니다.

동상 민영아 I 즐겁게 했는데, 수상까지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 국동균 I 대학교에 입학한 후 좋아하는 공부에 몰두한 지도 4년째,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한 성과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러 활동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공모전 홍보 사이트에서 발견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 손옥주 I 초등학교생 아이의 뉴스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는 어른들만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뉴스읽기의 즐거움을 꼭 전해 주고 싶었거든요.

은상 김광남 I 무언가 적어보는 일에 흥미를 갖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쓰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뉴스읽기의 즐거움을 꼭 전해 주고 싶었거든요.

동상 장인서 I 공모전 사이트에서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뉴스를 자주 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보는 것을 좋아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뉴스를 분석하는 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3. [나만의 TIP①] 뉴스일기를 쓸 때 어떤 뉴스를 주로 보았는지, 뉴스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상 국동균 I 저는 최대한 다양한 관점(언론사)의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접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뉴스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나누었습니다. ① 이전에 작성한 일기 주제와 언론사가 중복되지 않는지, 중복되더라도 최소화되는지. ② 내가 흥미를 느끼고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내용인지. ③ 내 일상과 연결할 수 있는 주제인지. ④ 해당 주제로, 새로운 방식의 일기 작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위와 같은 우선순위로, 여러 관점과 주제의 뉴스를 흥미롭게 읽으며, 다채로운 방식으로 일기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은상 손옥주 I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문제들을 먼저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하나의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을 골고루 읽었습니다.

은상 김광남 I 매일 아침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신문 읽기로 출발합니다. 관점이 다른 두 종류의 신문을 구독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한 종류만 봅니다. 대신, 제가 구독하는 기사의 내용이 다른 신문에는 어떤 관점으로 실렸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비교하여 읽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짚어주고 환기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뉴스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동상 김지나 I 표제를 (기사 제목) 읽으면 제 마음이 외칩니다. '이거 재미있겠다. 이거 내 마음과 같다.' 라고 말하는 뉴스를 골랐고 이번 뉴스일기 공모전은 저의 테라피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뉴스를 읽고 나와 적용시켜 뉴스일기를 쓰면서 많은 힐링이 되었습니다.

Q4. [나만의 TIP②] 제6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뉴스일기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금상 국동균 I 먼저 뉴스의 내용을 포스트잇에 요약하여 적고, 검정색(본문), 파란색(나의 생각), 빨간색(강조 및 추가 정보)으로 용도별로 세 가지 색의 펜을 사용해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주제와 언론사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일기 작성 정보를 담은 '작성 통계' 엑셀 파일을 만들어 주제와 언론사별 누적 작성 횟수 표를 작성하고, 주제별 작성 횟수 그래프를 만들어 어떤 주제에 편향되어 작성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상 손옥주 I 하나의 뉴스읽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작성된 관련기사와 사건배경들을 읽으며 촘촘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산 지식으로 다시 재정립 되는 걸 느꼈습니다.

은상 김광남 I 평소 뉴스를 눈여겨보며, 관심 있는 뉴스가 생기면 나만의 페이지(카카오톡이나 밴드)에 뉴스를 담았습니다. 새롭게 쏟아지는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 모아놓지 않으면 기억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는 신문의 광고도 포함됩니다. 인상적인 광고도 함께 모았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뉴스 중에서 개인적으로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골라 뉴스일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상 김설희 I 일기에 작성하고 싶은 이슈를 찾았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작성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기로 작성할 뉴스들은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매일 저장만 해두고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쌓여버린 기사들이 일기 작성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상 민영아 I 해당 기사를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사를 읽으니 능동적인 기사 읽기가 되어 재미있었습니다.

동상 장인서 I 전 수상작 형식을 훑어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매체들과 연결해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마구 생각날 지도 모릅니다.

Q5. [나만의 TIP③]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 국동균 I 저는 다양한 주제와 언론사의 뉴스를 읽는 것과 내용에 흥미를 느끼는 정도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언급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뉴스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실천해 보거나, 관련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시를 작성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은상 손옥주 I 정성입니다. 뉴스를 요약해보고 배경지식과 어휘를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과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일기 수를 늘리지 않고 매일 매일 정성들여서 알찬 일기를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은상 김광남 I 뉴스의 주요 기능은 의제 설정과 정보전달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도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갈등을 조정하고 감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친근한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의 논조를 함께 보려고 애썼습니다.

동상 민영아 I 기사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각, 생각을 확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상 김지나 I 짧은 순간의 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뉴스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테라피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게 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동상 김설희 I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다루는 것 단순 내용 정리나 요약이 아닌 나의 생각, 혹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하는 것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해보는 것 가독성을 위해 깔끔하게 구성하는 것 위 4가지에 가장 집중하며 작성한 것 같습니다.

Q6.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금상 국동균 I 모르는 분야에 대한 일기를 기록해야 할 때,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4~5시간, 적게는 1~2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뉴스를 폭넓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상 손옥주 I 수기로 작성하기로 계획했던 터라, 하루 하루 뉴스를 읽고 일기를 작성하는 시간이 약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끈기있게 일기쓰는 것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감사하게도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상 김광남 I 손글씨를 사랑하지만, 손글씨를 잘 쓰지 않는 요즘 문화에서 일일이 손으로 쓰는 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손글씨로 쓰고 뉴스의 여러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니, 없던 창의력이 생기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온라인 뉴스일기 작성도 가능한 디지털 세상이지만 역시 손글씨의 매력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상 민영아 I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사의 경우, 비판적으로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상 장인서 I 매번 같은 형식의 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재미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 틀은 유지하지만 디테일을 계속해서 바꾸며 일기를 작성했는데, 가끔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매체와의 연관성을 떠올리기가 어려워 한참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과정도 뉴스를 분석하고 제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상 김지나 I 거의 일 년 여 동안의 시간 동안 30개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을 쏟아내야 했고 꾸준히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 국동균 I 뉴스 일기를 작성하기 전에는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조금 좁았던 것 같습니다. 눈앞의 직접적인 일들만이 저의 세상이라고 느꼈는데, 뉴스를 읽고 일기를 쓰면서 뉴스의 내용을 저와 연결짓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세상이 더 넓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상 손옥주 I 뉴스읽기 뉴스일기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사유가 확장되고 지식이 풍부해지는 즐거움을 만끽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뉴스를 읽고 뉴스일기 써 보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들의 생각을 넓혀주는 뉴스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뉴스읽기 뉴스일기 전도사지요???

은상 김광남 I 언론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데 그 거울 보는 법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입니다. 쓰는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동상 김설희 I 저는 뉴스일기 작성 전, 뉴스를 읽을 때 대부분 뉴스가 제공하는 시각과 가치관을 저의 시각과 가치관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기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언론사의 입장을 곧 저의 입장으로 여겼습니다.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뉴스를 이리저리 다양하게 바라보고, 저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서, 이제는 뉴스를 읽을 때 저만의 관점과 생각을 정립하는 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동상 민영아 I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대화 소재 거리가 풍부해져서 좋았습니다.

Q8. 나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금상 국동균 I 매번 다른 풍경이 보이는 창문 밖 세상을 종이 한 장에 그려넣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상 손옥주 I 뉴스읽고 일기쓰고 나아가기!!

은상 김광남 I 뉴스읽기는 존재의 증거이고 뉴스일기는 사고하는 존재의 결과물이다.

동상 민영아 I 소소한 성취감과 행복감을 준 나의 소중한 아침 루틴

동상 장인서 I 뉴스를 분석할 힘을 갖도록 도와준 나의 습관

동상 김지나 I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도끼다! 나라는 사람을 깨우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동상 김설희 I 세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

성인 수상작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금상 | 국동균

[illegible]

은상 | 남경진

[illegible]

은상 | 손옥주

[illegible]

동상 | 김지나

[illegible]

동상 | 민영아

수상자 인터뷰

우수지도자

Q1.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손나영 I 학생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이렇게 값진 결과로 이어져서 보람이 큼니다. 뉴스 일기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도덕적 고민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안내하고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많은 도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

이기학 I 학생들과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함께 이루어 낸 결과여서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민근 I 동료 교사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것만 안내했을 뿐, 열심히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한종훈 I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도자상을 받게 되어 기분 좋고 영광입니다. 아이들과 힘들게 뉴스 읽으며 치열하게 토론하였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던 아이들도 점차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교실 풍경을 보며 뿌듯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 모두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개인상을 수상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전영아 I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도자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학년 학생과 참여하다 보니 30회 채우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30회를 채우는 것이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와 줘서 23명 중 22명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해밀초 2학년 1반 학생에게 돌립니다.

Q2. 어떻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권재범 I 6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아침활동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

서도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던 중,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대회를 알게 되었어요. 1년 동안 학생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뉴스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키우며 글쓰기를 하는 목표와 이 대회의 취지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또한,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동기 부여가 필요했던 시점이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철 I 이전 대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입상한 적 있습니다. 뉴스일기를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뉴스라는 정보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느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박명재 I 미디어아카데미 사업 중 강사님께 전달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나영 I 학생들이 대부분의 뉴스를 유튜브로 시청한다는 것을 보고 디지털 미디어 뉴스 리터러시를 키워주고 싶어 참가하였습니다.

윤혜진 I 23년도에 친구의 딸이 뉴스읽기 뉴스일기에서 수상하였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일년 간 뉴스를 읽고 뉴스 일기를 쓴 것이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 학급에 꼭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매해 하던 글쓰기 지도는 24년도엔 뉴스읽기 뉴스일기로 하기로 계획을 하였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 진리이므로 동학년과 함께 참여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피자도 먹어야 했으므로...)그렇게 1,2반이 함께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나만의 TIP@] 제6회 참여자를 위해 나만의 지도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한태희 I 수업 내용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같이 검색해 보고 좋은 기사를 서로 공유하여 뉴스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수업내용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어 더욱 깊게 알 수 있었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뉴스 읽기를 수업의 개념과 연관지어 보며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방지영 I 기사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요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뉴스 기사를 읽으며 생긴 궁금증과 읽기 전후 생각을 각각 작성하게 지도하였습니다. 기사를 통해 어떤 점을 배웠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희련 I 학생들에게 <뉴스 읽기 뉴스 일기> 공모전의 홈페이지에 있는 작성법을 설명하고, 이해가 더딘 학생들을 방과 후에 남겨 추가 지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원할 때는 주말에도 지도했습니다. 처음 작성한 뉴스 일기에 대해 피드백해서 작성 방향이나 기법을 추가로 알려주면 그 이후부터는 잘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응모했던 선배들의 작품을 참고 자료로 보여주었는데 학생들이 작성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수정 I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뉴스를 잘 고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4. [나만의 TIP@] 뉴스일기장 작성을 지도하며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무엇인가요?

정남주 I 뉴스를 읽은 후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낱말로 문장을 써보는데 중점을 두었고 나아가 뉴스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기를 바랐습니다.

손나영 I 학생들이 뉴스를 접할 때 선입견 없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논란이 되는 자극적인 이슈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주제를 고르는 것도 신경 써야 해요. 또한,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뉴스를 읽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기학 I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활동 목적에 맞게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비평하고 자기 생각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깊이가 있는 기사의 경우 학생들이 소화하기 어려워했으나 옆에서 설명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성 내용이 많지 않더라도 깊이 있게 또한 지금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학습하고 있는 개념들과 연계해서 작성토록 지도하였습니다.

한종훈 I 뉴스뉴스도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의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므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읽기를 통해 뉴스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만의 생각을 구축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Q5. 뉴스일기장 작성을 지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전영아 I 아무래도 저학년이다 보니 단어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이 신문을 보면서도 모르는 단어와 표현들이 많아서 기사를 읽기 전에 단어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재범 I 장기적인 활동이다 보니, 중간에 학생들이 지치거나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학습 활동을 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나 과학 수업에서 다룬 주제를 뉴스 일기와 연결하거나, 토론 활동을 통해 뉴스를 주제로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성철 I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과 수업을 하는 가운데 뉴스일기 작성까지 지도해야 하니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박명재 I 학생들이 PC 활용을 꺼려하고 대부분 태블릿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양식 활용이나 파일 제작에 학생들이 난항을 겪어 이를 하나하나 도와준 점이 고되었습니다.

이나영 I 다양한 분야의 뉴스보다 환경이나 역사에 치중하였습니다. 특히 정치 부분은 지도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주현 I 대충 쓰거나 밀려 쓰는 학생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정남주 I 최신 뉴스 중에 학생들 수준에 읽기 적절하며 교과 학습내용과 연관된 기사문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Q6. 뉴스일기 작성을 지도하며 생긴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기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윤혜진 I 아이들에게 처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소개하며 1인 1피자를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홍보를 하였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후 뉴스 일기를 제출하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피자' 이야기를 하며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비록 pizza는 받지 못했지만 동기 유발에는 단연 최고였습니다!

한태희 I 야구 경기를 열심히 관람하던 한 학생이 야구와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고 우리 반을 새로운 야구단으로 만들어주었던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야구단에 결맞은 마크, 마스코트 그리고 응원단 등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 반이 하나로 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일이라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방지영 I 해외 대학 입시 준비 또는 영어 학습에 특히 열정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영문 기사를 읽거나 뉴스일기를 영어로 정리하며 학습에 활용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최희련 I 작년에도 이 공모전에 응모했었는데, 그때 지도했던 3학년 학생이 졸업해서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 후 수행평가를 볼 때 뉴스일기 작성할 때 썼던 PMI 기법이나 KWL 기법 등을 이용해 답을 작성했는데, 교과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고 학급 학생들 앞에서 우수답안으로 말씀해 주셔서 뿌듯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단지 공모전에만 응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여 저 또한 보람 있었습니다. 올해 공모전에서 열심히 작성했는데 안타깝게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제가 상장을 만들어 간단한 간식과 함께 우리만의 시상식을 했는데 학생들이 좋아해서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수정 I 뉴스를 좋아하게 되어야 하는데 뉴스일기쓰기에 다소 지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ㅎㅎ 이번 6회는 기간이 길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남주 I 뉴스일기 숙제가 있는 날에는 푸념을 하곤 했는데 어느날 한 남학생이 "힘들지만 뉴스일기를 하면 유익해져서 럭키비키잖아!"라고 말해서 함께 크게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뉴스일기를 쓰자고 하면 웃음이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Q7.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로, 참여자들의
달라진 점을 느낀 적이 있으실까요?**

손나영 I 처음에는 뉴스를 읽는 것이 낯설고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뉴스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과 논리적인 표현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기학 I 평소엔 잘 접하지 않았던 기사에 대해 거부감 없이 탐색하는 모습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자기 생각 적는 것을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가감 없이 본인 의견을 표현해 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사를 보는 눈(사실과 거짓의 구별)이 길러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습니다.

한동훈 I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구들의 가십거리, 연예인 이야기나 게임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스톱워드로 그만한 대화 주제가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면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뉴스에서 읽었던 사회현상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뿌듯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교실로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전영아 I 일기 작성 전에는 좋다/싫다, 재미있다/재미없다 등 이분법적 사고나 단답으로 쓰거나 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기 작성을 하면서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이를 글로 쓸 것인지 그림으로 그릴 것인지를 스스로 정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글감을 대하는 자세와 글감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권재범 I 뉴스 일기장을 작성하기 전과 후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뉴스를 보고 내용을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뉴스 속 사건과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능력이 발전했어요. 또한, 다양한 이슈를 접하면서 마음도 한층 넓어지고, 공감 능력과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성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8. 지도한 참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상철 I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참여해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뉴스를 잘 이용하는 훌륭한 시민이 되길 바랄게!

박명재 I 뉴스일기 30편이 작성하기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힘들겠지만 여러분은 일류니 즐겨주시길 바래요.

강주현 I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가한 우리 4학년 2반 친구들 모두 대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뉴스 찾아 읽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가 되면 좋겠어요.

한태희 I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 수고의 끝에 더욱 성장해 있을 예쁜 아이들을 보게 될 것 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방지영 I 자랑스러운 충남 삼성고등학교 11기, 너희가 매일 매일 뉴스 일기를 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는 분명 넓어졌을 거야. 정답은 책에만 있지 않단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밀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2학기에도 꾸준히 해보자! 파이팅!

최희련 I 참여했던 학생들 모두 열심히 해서 고맙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응모했던 경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뉴스에 관심을 두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한수정 I 평소 읽지 않던 뉴스를 읽고 글을 쓴다고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에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반 학생들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정남주 I 가람이들아 너희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글이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며 행복한 시간이었어. 어려운 뉴스일기 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해낸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손나영 I 동평중 2학년♥ 여러분 덕분에 이번 수업이 정말 뜻깊었어요. 뉴스 읽기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해 준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며 멋진 도덕적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길 응원할게요. 항상 고마워요!

이기학 I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준 우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한종훈 I 사랑하는 담방초 6학년 1반 아이들~ 여러분이 선생님 믿고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준 성과가 선생님께만 온 것 같아 미안한 감정이 드네요. 여러분의 문해력, 사고력, 창의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어 어떤 수업을 듣든지 많은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꼭 다양한 글을 읽고 본인만의 의견을 멋지게 피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전영아 I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30회라는 횟수가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 주어 기특합니다. 개인 수상을 한 사람이 한 명이지만 우수지도상이 별빛나라 모두가 받은 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남은 시간 일기 쓰면서 했던 것처럼 서로 도우며 성장해가는 해밀초 2학년 1반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권재범 I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뉴스 일기 쓰기를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 도전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응원하며 노력한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의 도전에도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공모전 수상 명단

0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명	성함	소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최나운	고운고등학교

어린이 저학년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민지우	아주특별한도서관
은상	이소은	아주특별한도서관
	이다현	의왕초등학교
	김한겸	월서초등학교
동상	김태은	대구효성초등학교
	김기쁨	서울강남초등학교
	김세하	해밀초등학교
	박소윤	대구진월초등학교
	최하연	무거초등학교
	김린아	거제초등학교

어린이 중학년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양하윤	중탑초등학교
은상	김주원	중탑초등학교
	기은유	서울강서초등학교
	황선하	대전두리초등학교
동상	김서원	대전두리초등학교
	윤예준	충남아산 탕정초등학교
	엄수빈	천동초등학교
	최승은	대구월서초등학교
	최혜윤	이현초등학교
	유다원	광명서초등학교

어린이 고학년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홍수민	서울특별시잠현초등학교
은상	송라임	전주우전초등학교
	김연아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이지윤	용연초등학교
동상	이강희	서울신암초등학교
	박재민	성동초등학교
	임빈	서울증산초등학교
	박아영	서울상신초등학교
	송이루	전주우전초등학교
	김강	곤명초등학교

청소년(중등)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박시영	창선중학교
은상	이하람	칠보중학교
	임윤	서울증산초등학교
	박서연	천안용곡중학교
동상	엄지후	울산서여자중학교
	지다울	원화중학교
	최소은	월암중학교
	황수아	서울세화여자중학교
	박소율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박서이	솔밭중학교

청소년(고등)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방시현	인천신현고등학교
은상	이민정	인천신현고등학교
	강가연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HANOI 고등부
	김수연	인천논현고등학교
동상	오지민	제주여자고등학교
	나다현	삼일고등학교
	김지후	제주여자고등학교
	최하늘	완주고등학교
	정은서	삼일고등학교
	조한나	원광여자고등학교

성인

수상명	성함	소속
금상	국동균	강원대학교
은상	김광남	미디어교육 강사
	남경진	서울가곡초등학교
	손옥주	사천해양경찰서 하동파출소
동상	이성록	반곡초등학교
	백수민	전남대학교
	김지나	버리의 정원
	김설희	전북대학교
	민영아	서울상신초등학교
	장인서	세종대학교

지도자

수상명	성함	소속
우수지도자상	손나영	대구 동평중학교
	방지영	충남삼성고등학교
	권재범	대전동대초등학교
	최희련	안양여자중학교
	정민근	대전동대초등학교
	이기학	현화고등학교
	강주현	이현초등학교
	윤혜진	이현초등학교
	한태희	신백현초등학교
	전영아	해밀초등학교
	정남주	해밀초등학교
	한수정	서진초등학교
	한종훈	인천담방초등학교
	박명재	동지여자고등학교
	이나영	계룡초등학교
	이성철	신명초등학교

더 많은 뉴스읽기 뉴스일기
수상작 보러 가기



제 6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자세히 알아보기

